

# 신뢰의 구조 :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 정서 통제 이론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우 경 임

# 신뢰의 구조 :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 정서 통제 이론을 중심으로 -

지도 유 석 춘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우 경 임

# 차 례

표 및 그림 차례

우리말 줄임글

제1장 서론 .....	1
1. 문제 제기 .....	1
2. 연구 설계 .....	4
2-1 연구 대상 .....	4
2-2 연구 방법 .....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10
1. 정서 통제 이론(The Affect Control Theory) .....	10
2. 신뢰의 차원에 대한 이론들 .....	13
3. 연구의 분석틀 .....	17
제3장 한국에서의 신뢰 구조 .....	21
1. 신뢰의 정도 비교 분석 .....	21
2. 정서 통제 이론의 적용 .....	25
3. EPA 차원 분석 .....	29
3-1 사람에 대한 신뢰 .....	29
3-2 제도에 대한 신뢰 .....	33
4. 소결 .....	37

제4장 미국에서의 신뢰 구조 .....	38
1. 신뢰의 정도 비교 분석 .....	38
2. 정서 통제 이론의 적용 .....	42
3. EPA 차원 분석 .....	46
4-1 사람에 대한 신뢰 .....	46
4-2 제도에 대한 신뢰 .....	49
4. 소결 .....	52
제5장 한국과 미국의 비교 .....	53
1. 한국 :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 비교 .....	54
2. 미국 :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 비교 .....	55
3. 한국과 미국의 사람에 대한 신뢰 비교 .....	56
4. 한국과 미국의 제도에 대한 신뢰 비교 .....	61
5. 소결 .....	65
제6장 연구의 의의 및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언 .....	66

도움받은 글들

- 부록 1. 예비 조사 설문지
- 부록 2. 본 조사 대상 정체성 100개
- 부록 3. 요인 분석 결과 - 한국
- 부록 4. 요인 분석 결과 - 미국
- 부록 5. 설문지 예

ABSTRACT

## 표 및 그림 차례

### 표 차례

【표 1】 한국 조사의 응답자 구성 .....	4
【표 2】 미국 조사의 응답자 구성 .....	4
【표 3】 한국 조사에서 제시된 정체성 45개 .....	6
【표 4】 한국 조사에서 제시된 형용사 52개 .....	7
【표 5】 미국 조사에서 제시된 정체성 35개 .....	8
【표 6】 미국 조사에서 제시된 형용사 40개 .....	9
【표 7】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위한 분석틀 .....	19
【표 8】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 - 한국 .....	22
【표 9】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 - 한국 .....	24
【표 10】 형용사에 대한 요인 분석 특정치와 변량 - 한국 .....	25
【표 11】 각 요인에 대한 주요 요인 부하치 - 한국 .....	26
【표 12】 회귀 분석 결과 :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한국 .....	28
【표 13】 1차 집단의 신뢰 및 각 요인별 평균 점수 - 한국 .....	29
【표 14】 2차 집단의 신뢰 및 각 요인별 평균 점수 - 한국 .....	33
【표 15】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 - 미국 .....	40
【표 16】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 - 미국 .....	41
【표 17】 형용사에 대한 요인 분석 특정치와 변량 - 미국 .....	43
【표 18】 각 요인에 대한 주요 요인 부하치 - 미국 .....	44
【표 19】 회귀 분석 결과 :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미국 .....	45
【표 20】 1차 집단의 신뢰 및 각 요인별 평균 점수 - 미국 .....	46
【표 21】 2차 집단의 신뢰 및 각 요인별 평균 점수 - 미국 .....	49
【표 22】 한국과 미국의 요인별 평균 점수 - 사람 .....	57
【표 23】 한국과 미국의 요인별 평균 점수 - 제도 .....	61

## 그림 차례

【그림 1】 EPA 차원의 구조 .....	10
【그림 2】 EPA 차원과 미시 상호 작용의 연결 .....	11
【그림 3】 요인 Scree plot - 한국 .....	26
【그림 4】 1차 집단 정체성의 요인 평균 점수 분산표 - 한국 .....	30
【그림 5】 2차 집단 정체성의 요인 평균 점수 분산표 - 한국 .....	34
【그림 6】 요인 Scree plot - 미국 .....	43
【그림 7】 1차 집단 정체성의 요인 평균 점수 분산표 - 미국 .....	47
【그림 8】 2차 집단 정체성의 요인 평균 점수 분산표 - 미국 .....	50
【그림 9】 한국과 미국의 1차 집단 정체성의 요인 평균 점수 비교 .....	58
【그림 10】 한국과 미국의 2차 집단 정체성의 요인 평균 점수 비교 .....	62

우리말 줄임글

## 신뢰의 구조 :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 정서 통제 이론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다른 사회, 다른 문화에서는 ‘신뢰’의 구조와 양상이 다르게 구성될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비교 문화 연구의 양적 방법론인 ‘정서 통제 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의 정서적 차원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개인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깊숙이 내면화하고 있는 행위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신뢰’는 개인이 손익을 계산하는 인지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문화가 반영된 개인의 정서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연구 방법은 첫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한국과 미국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 둘째, 정서 통제 이론을 적용하여 추출된 요인들의 ‘신뢰’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신뢰’는 분명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곧 1차 집단의 두터운 신뢰가 2차 집단으로 확장되지 못 하는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의 특색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상호 상승하는, 1차 집단의 얇은 신뢰가 제도의 규칙성과 공정성을 통해 보완되는 개인주의 문화의 특색을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수집된 자료를 요인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는 친밀성(sociability), 책임성(responsibility), 활동성(activity), 권력성(power)이라는 네 가지 정서차원이, 미국에서는 책임성(responsibility), 친밀성(sociability), 활동성(activity)이라는 세 가지 정서 차원이 추출되었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는 ‘친밀성’에 의해서 ‘제도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국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은 1차 집단 정체성에

대한 ‘친밀성’ 요인 점수가 높기 때문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은 2차 집단 정체성에 ‘책임성’ 요인 점수가 낮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은 1차 집단 정체성의 ‘친밀성’ 요인 점수와 2차 집단 정체성에 대한 ‘책임성’ 요인 점수가 모두 높은 분포를 보인다.

한국의 주요 특징은 ‘사람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여성 정체성보다 남성 정체성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제도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행정이나 정치 같은 국가 제도에 대해서는 심한 불신을 보여주지만 의료, 교육, 종교 같은 사회 제도에는 상당한 신뢰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가 낮은가를 논의할 때 국가 제도와 사회 제도를 분리해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주요 특징은 ‘사람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한국과 달리 남성 정체성보다는 여성 정체성을 신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과 ‘제도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국가 제도나 사회 제도 구별 없이 고른 신뢰를 보인다는 점이다.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판사, 변호사, 검사 등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교육 제도나 행정,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신뢰’에 대한 분석에 더불어, ‘정서 통제 이론’의 타당성도 재검토할 수 있었다. 특정 사물에 대한 인간의 정서가 가치평가(evaluation), 권력(power), 활동성(activity) 세 차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정서 통제 이론’의 기본 가정이다. 그러나 가치 평가(evaluation) 1차 집단에 대한 ‘친밀성’과 2차 집단에 대한 ‘책임성’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사물 정체성이 아닌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에 대한 설명력은 부족해 보인다. 또한, 한국에는 권력성 차원이 추출되지만 미국에는 추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론의 범문화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핵심되는 말** : 신뢰, 정서 통제 이론, 사람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사적 신뢰, 공적 신뢰, 한국과 미국의 비교,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권력성



# 제 1장 서론

## 1. 문제 제기

우리는 왜 타인을 신뢰하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의 배신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을지라도 곧잘 타인에게 신뢰를 보낸다. 모래처럼 흩어진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뢰를 통해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신뢰’는 연대, 공동체 의식, 사회 자본 등으로 모습을 달리하면서 사회학의 오랜 화두가 되어 왔다. 더구나 개인의 삶의 터이자 울타리로서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신뢰’의 회복은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가 타인을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에 자리매김(embedded)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이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신뢰의 기준은 분명히 살고 있는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본고는 문화에 따른 신뢰의 구조와 양상의 차이를 밝히고 각 문화의 구성원으로써 개인이 신뢰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인 것이다.

문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느 정도 범위를 포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문적 입장에 따라 이견이 있을 테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문화차를 누구든지 쉽게 경험할 수 있다. 한 외국인의 고백을 예로 들어 보자. 친목 도모를 위한 야유회에서 경험한 일이다. 날씨가 무척 더운 날이어서 혼자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나왔는데 동행한 한국 친구들이 실망스런 표정을 짓는 것에 매우 당황했다고 한다. 자신은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라 생각했으나 한국 학생들은 집단 일원으로서의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sup>1)</sup> 만약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나라였다면 동행 중 혼자 아이스크림

1) 나디아라힘, “한국에 살면서” 한국일보 2000년 4월 24일자

을 사서 먹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 문화로, 미국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 문화로 보는 연구 결과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Hofsede, 1995; 최준식, 2000; 차재호 & 정지원, 1993). 아래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호프세드의 묘사이다.

세계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저자는 이런 사회들을 집단주의라고 부르겠다...이 말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권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권력을 의미한다. 우리 생애에서 만나게 되는 최초의 집단은 우리가 태어나는 가족이다. 그러나 가족 구조는 사회마다 같지 않다. 대부분의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아이의 성장 배경이 되는 '가족'의 구성은 서로 가까이 모여 사는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 고모나 이모, 하인 또는 다른 식구들이 함께 산다. 이것을 문화 인류학에서는 확대 가족(extended Family)라고 부른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차 자기들은 '우리'라는 한 집단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우리'라는 집단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집단이다. '우리'라는 집단은 사회의 수많은 '그들' 집단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우리' 집단 (또는 내 집단)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주된 근원이 되며, 인생의 역경에 대항해서 개인이 지닌 유일한 안전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기 내집단에 대해 평생에 걸친 충성심을 보이며, 이 충성심을 위배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가장 못된 일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해서 개인과 내집단 간에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의존 관계가 형성된다.

세계사람 중 소수는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에 산다. 이런 사회를 저자는 개인주의라고 부르겠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 또는 부모, 형제, 자매만으로 구성된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난다. 일부 사회에서는 편부모 가족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 다른 친척들은 다른 고장에 살고 있어 서로 얼굴을 맞댈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런 유형을 핵가족(nuclear Family)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자라면서 곧 자기 자신을 '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의 개인적 정체인 '나'는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르며 이와 같은 타인은 소속 집단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예를 들어, 놀이 친구들도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된다. 교육의 목적은 어린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립이 가능해지기가 무섭게 아이는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식들은 집을 떠난 후에 부모와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완전히 관계

를 끊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런 유형의 사회에서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실제 면에서나 심리 면에서나 집단에 의존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Hofstede, 1995).

위와 같은 문화차를 염두에 두면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아래서는 신뢰의 구조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간의 불신이 제도화되어서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고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간의 신뢰가 두터워서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재열, 2001; 이재혁, 1998).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구성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신뢰 현상에 대한 기술에만 머물러 있을 뿐 그러한 신뢰 현상을 발현시키는 문화나 개인의 미시 동기에 대한 탐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뢰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남아 있는 것은 신뢰를 거시 차원에서만 분석하여 각각의 문화 안에서 행위하는 개인들의 정서적 차원, 근본적 기제를 경시해 왔기 때문이다. 곧, 개인이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왜 신뢰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 외부로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신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므로 여기서 개개인이 경험하는 미시 차원을 다루는 사회 심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정서 차원을 분석하여 한국과 미국의 신뢰 구조가 다르게 발현되는 근원과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문화차를 통계적 방법으로 표준화한 정서 통제 이론가<sup>2)</sup>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및 사회 정체성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정서 차원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정서 차원을 탐색하여 한국과 미국의 신뢰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

2) 정서 통제 이론은 세상의 모든 사물에 대한 정서는 가치평가(evaluation), 권력(potency), 활동성(activity)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Osgood, 1975).

## 2. 연구 설계

### 2-1 연구 대상

오스굿<sup>3)</sup>의 원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내재화하고 있는 개인을 표집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라는 특성 외에 표집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는 없으므로 설문 대상이 용이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 (1) 한국의 응답자 구성

총 응답자 수는 904명<sup>4)</sup>이고 서울 지역에서만 2002년 6월에 수집되었다.

【표 1】 한국 조사의 응답자 구성

구분		빈도	%
학교	성균관대학교	243	26.88
	연세대학교	166	18.36
	서울시립대학교	216	23.89
	국민대학교	279	30.86
합계		904	100.00

#### (2) 미국의 응답자 구성

총 응답자는 946명이었고 2002년 10월에 수집되었다.

【표 2】 미국 조사의 응답자 구성

구분		빈도	%
학교	University of Iowa	946	100.00
합계		946	100.00

3) Osgood, Charles E., William, H, May, and Murray S. Miron. 1975. *Cross-Cultural Universals of Affective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4) 총 응답자 수는 케이스 수로 봐야 하는데 본 조사에서 한 사람이 4개의 정체성에 대해 응답했기 때문이다. 빈도가 100이면 실제로는 25명이 응답한 것이다.

## 2-2 연구 방법

### (1) 한국의 연구

이 연구는 오스굿<sup>5)</sup>과 하이즈<sup>6)</sup>의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된 것으로 본래는 비교 문화 연구 목적<sup>7)</sup>을 위해 수집된 것이다. 우선 연세 대학교 사회학 전공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44개의 정체성<sup>8)</sup>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형용사를 적도록 하여서 빈출 형용사를 정리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 조사에서 빈출 순으로 정리된 형용사 52개에 대해 반대 의미의 형용사를 짝지어서 한 쌍으로 만들고, 제시된 정체성에 대한 즉각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9점 척도로 52개 형용사를 각각 평가하게 하였다. 오스굿과 하이즈의 연구 중에서 한국어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는 정체성(identity)을 골라내어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총 100개의 사회 정체성들을 무작위로 4개씩 25개 설문지로 나누었다. 곧 100개의 정체성 1세트가 수집<sup>9)</sup>되려면 실제로 25명이 응답해야 한다. 응답자는 각각의 정체성에 대한 52개의 빈출 형용사에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각각의 정체성에 대하여 얻어진 형용사 점수의 평균은 한국 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리라는 것이 연구의 가정이다.

---

5) Osgood, Charles E., William, H. May, and Murray S. Miron. 1975. *Cross-Cultural Universals of Affective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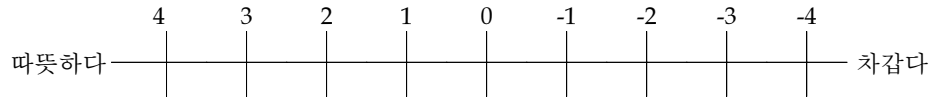
6) Heise, D. R. 2001. "Project Magellan: Collecting Cross-cultural Affective Meanings Via the Internet. *Electronic Journal of Sociology*: 5(3)

7) 최선희 · 이명진 · 김재은, 2003. "한국 가족 관련 정체성에 대한 감정적 의미로 살펴 본 한국 가족의 구조와 변화 양상"이라는 2003년 한국 사회학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같은 자료이다. Iowa 대학의 자료도 역시 김재은 교수께 빚지고 있는 것이다.

8) 부록 1을 참조할 것

9) 부록 2를 참조할 것

예를 들면, 제시어 대통령에 대하여 ‘매우 따뜻한’에서 ‘매우 차가운’까지 아래와 같은 표에 표시하도록 하는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이다. 응답자는 제시된 형용사가 질문되는 정체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0에 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본고의 연구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김재은 교수가 정서 통제 이론으로 한국 문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오스굿과 하이즈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수집된 자료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일부 정체성, 곧 1차 집단과 관련된 정체성 25개, 2차 집단과 관련된 정체성 20개의 결과만이 분석 대상이 된다. 제시된 정체성 45개와 형용사 반의어 52개는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 조사에서 제시된 정체성 45개

1차 집단 정체성 (친분 있는 사람)				2차 집단 정체성 (제도의 행위자)			
1	동향사람	14	할아버지	1	건축가	11	공무원
2	어머니	15	딸	2	비행기조종사	12	목사
3	아내	16	손자	3	의사	13	판사
4	손녀	17	연인	4	선생님	14	정치가
5	이모	18	선배	5	경찰	15	스님
6	동생	19	친구	6	기자	16	검사
7	며느리	20	남편	7	장관	17	교장
8	아들	21	할머니	8	교수	18	대통령
9	장인	22	후배	9	변호사	19	간호사
10	시아버지	23	사위	10	국회의원	20	공인중개사
11	고모	24	동창				
12	장모	25	시어머니				
13	아버지						

【표 4】 한국 조사에서 제시된 형용사 52개

1	따뜻하다 - 차갑다	27	믿을 수 있다 - 믿을 수 없다
2	좋다- 싫다	28	가깝다 - 멀다
3	편하다 - 어렵다	29	멋있다 - 촌스럽다
4	무섭지 않다 - 무섭다	30	정직하다 - 부정직하다
5	민주적이다 - 권위적이다	31	자상하다 -무심하다
6	공정하다 - 불공정하다	32	부드럽다 - 딱딱하다
7	너그럽다 - 엄하다	33	사랑스럽다 - 밉다
8	높다 - 낮다	34	재 빠르다 - 느리다
9	위엄있다 - 경박하다	35	용감하다 - 비겁하다
10	소중하다 - 하찮다	36	희생적이다 - 이기적이다
11	존경스럽다 - 멸시받는다	37	훌륭하다 - 보잘것없다
12	친하다 - 소원하다	38	젊다 - 늙다
13	교양있다 - 상스럽다	39	권위가 있다 - 권위가 없다
14	청렴하다 - 부패하다	40	다정하다 - 냉담하다
15	예리하다 - 둔하다	41	아름답다 - 추하다
16	활동적이다 - 수동적이다	42	진보적이다 - 보수적이다
17	깔끔하다 - 구질구질하다	43	반갑다 - 귀찮다
18	튼튼하다 - 못미덥다	44	유능하다 - 무능하다
19	귀엽다 - 징그럽다	45	차분하다 - 들떠있다
20	순종적이다 - 반항적이다	46	똑똑하다 - 멍청하다
21	소신있다 - 소신없다	47	친절하다 - 불친절하다
22	현명하다 - 어리석다	48	건강하다 - 허약하다
23	융통성 있다 - 고집스럽다	49	호탕하다 - 답답하다
24	철들다 - 철없다	50	자랑스럽다 - 부끄럽다
25	싹싹하다 - 무뚝뚝하다	51	정상적이다 - 이상하다
26	권력이 있다 - 권력이 없다	52	강하다 - 약하다

설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 중 “믿을 수 있다 - 믿을 수 없다”라는 형용사를 별도 변수로 취급하여 이로써 신뢰를 측정한다. 나머지 51개 형용사들은 요인 분석을 통하여 요인을 추출해 내고, 각각의 정체성에 대하여 추출된 요인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신뢰’는 각각의 정체성에 대한 평균 점수를 통해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신뢰와 추출된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어떤 정체성에 대하여 ‘신뢰’의 평균 점수가 높다면, 추출된 요인들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느냐가 ‘신뢰’가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 (2) 미국의 경우

미국 자료 역시 김재은 교수가 한국과의 비교 연구를 위해 아이오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순서로 진행되었으나 수월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형용사는 40개, 정체성은 35개로 제한되었다. 여기서 “dependable - undependable”<sup>18</sup> 을 별도 변수로 신뢰를 측정하고 나머지 39개 형용사를 대상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표 5】 미국 조사에서 제시된 정체성 35개

1차 집단 정체성 (친분 있는 사람)				2차 집단 정체성 (제도의 행위자)			
1	Grandson	11	Mother-in-law	1	Professor	11	President
2	Father-in-law	12	Wife	2	Teacher	12	Clergyman
3	Sister	13	Friend	3	Nurse	13	Attorney
4	Grandmother	14	Sweetheart (lover)	4	Computer programmer	14	Prosecuting attorney
5	Daughter-in-law	15	Grandfather	5	Principal	15	Pilot
6	Aunt	16	Husband	6	Policeman		
7	Mother	17	Father	7	Doctor		
8	Daughter	18	Son-in-law	8	Architect		
9	Son	19	Brother	9	Congressman		
10	Granddaughter	20	High school classmate	10	Ju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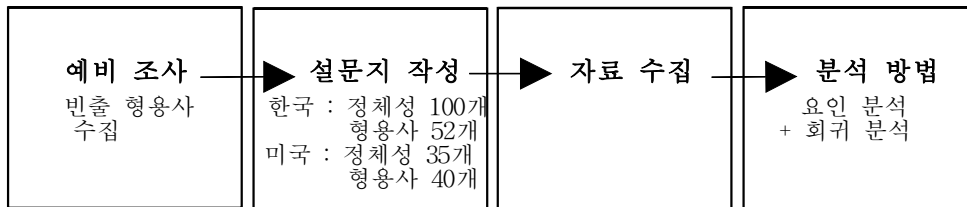


【표 6】 미국 조사에서 제시된 형용사 40개

1	young - old	21	fair - unfair
2	vulgar - cultured	22	selfless - selfish
3	nice - awful	23	despised - respected
4	authoritarian - democratic	24	weak - healthy
5	cute - ugly	25	immature - mature
6	bad - good	26	slow - fast
7	composed - agitated	27	soft - hard
8	dependable - undependable	28	smart - dumb
9	foolish - wise	29	principled - unprincipled
10	strong - weak	30	normal - abnormal
11	dishonest - honest	31	distant - close
12	praiseworthy - shameful	32	outstanding - mediocre
13	affectionate - unfeeling	33	low - high
14	lifeless - lively	34	friendly - unfriendly
15	intimate - distant	35	rebellious - obedient
16	authoritative - nonauthoritative	36	comfortable - uncomfortable
17	clean - corrupt	37	dignified - frivolous
18	attentive - indifferent	38	powerless - powerful
19	passive - active	39	cowardly - courageous
20	warm - cold	40	tolerant - strict

(3) 실험 절차 요약

한국 자료는 최셋별·이명진·김재은 교수가 2003년 한국 사회학회에서 발표한 “한국 가족 관련 정체성에 대한 감정적 의미로 살펴본 한국 가족의 구조와 변화 양상”으로 이미 분석된 바 있고 연구 방법도 위 논문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신뢰’를 별도 변수로 하는 연구 목적에 맞게 같은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미국 자료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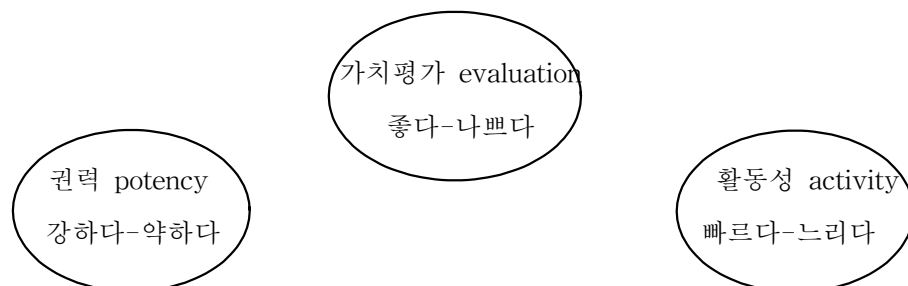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1. 정서 통제 이론 The Affect Control Theory

오스굿과 동료들은 비교 문화적 연구를 수행하여 인간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을 접근하는 정서적 의미는 세 차원 EPA 곧, 가치 평가(evaluation), 권력(potency), 활동성(activity)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다른 문화가 모두 동일한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은 아니며 문화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들은 정서적 의미의 세 가지 주요 차원의 차이로써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보편적이라 판명된 세 차원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각국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준거 틀을 제공할 것이며 매우 효율적인 비교 방법이 될 것이다.

정서 통제 이론에서 정서적 의미란 인간 의식의 복잡하고 뒤엉킨 형태의 발현으로 특정 경험의 연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정 개념에서 정서적 의미를 분석한다는 것을 축적된 경험의 규칙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Landford & Mackinnon, 2000). 따라서 정서 통제 이론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의 경험을 통해 생성된 문화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양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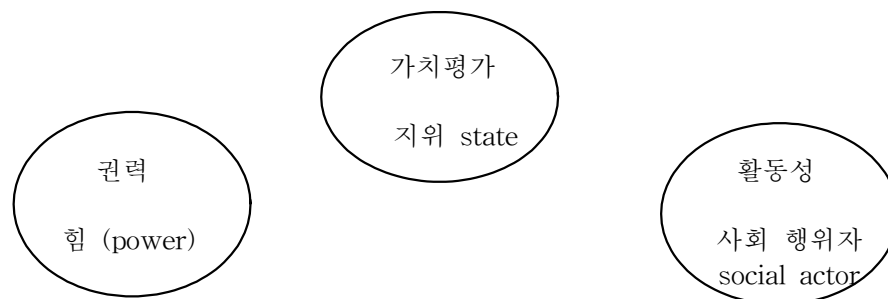
【그림 1】 EPA 차원의 구조



우리의 정서를 구성하고 있는, 약자로 EPA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은 가치 평가(evaluation)는 ‘좋다’와 ‘나쁘다’에, 권력 (potency)는 ‘강하다’와 ‘약하다’에, 활동성(activity)는 ‘빠르다’와 ‘느리다’에 각각 관련된 개념이다. 이러한 정서적 차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보면 개인이 특정 대상에 어떻게 반응하고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상할 수 있다.

오스굿과 동료들이(Osgood, May, and Miron, 1975) 의미론적(semantic) 유사성과 차이에 의해 인간 마음이 조직되고 단순화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에 더불어 Kemper와 Collins는 정서 차원이 미시 수준의 상호 작용에서 지위(state), 권력(power)과 사회적 행위자(social agency) 또는 정서적 에너지(emotional energy)에 대응된다고 주장한다 (Kemper and Collins, 1990). 예를 들면, 미국인에게 반사회적인 기질은 나쁜, 무력한, 비활동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반대로 의지가 굳고, 용감하다고 인지되는 것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 해당된다. 정서 통제 이론으로 사회학의 지위나 권력 같은 주요 개념이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 2】 EPA 차원과 미시 상호 작용의 연결



사회학내 정서 통제 이론가(Affect Control Theory)들은 오스굿의 발견을 기본 전제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상호 작용과 정체성에 대한 이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Heise, [1979]2001; MacKinnon, 1994; Smith-Lovin and Heise, 1988). 현재 하이즈를 주축으로 한 ACT 이론가들은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

다.<sup>10)</sup> 이러한 비교 문화 연구는 여러 문화 사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아이라는 정체성은 다른 문화에서는 상이한 정서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만약 정서 통제 이론을 통하여 여러 문화 사이의 준거되는 정서와 행동에 차이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비교 문화 연구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게 된다.

하이즈의 연구는 8개국에서 세 가지 정체성 사이에 권력(potency)과 가치 평가(evaluation)에 대한 의미 있는 변이를 보여준다. 각국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좋게 평가하고 권력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많이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만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권력이 있다고 보는 차이를 드러낸다 (Heise, 2001). 정서 통제 이론을 적용하여 일본과 미국의 비교한 스미스의 다른 연구도 흥미로운데 개인의 특질을 구성하는 EPA 차원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해 개인의 특질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EPA 차원으로 표현하여 남성 형용사와 여성 형용사를 구분한다. 결과 일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삶의 공간이 미국 남성과 여성보다 사회적 삶의 공간이 보다 차이가 나며, 개인이 처한 상황의 맥락에 보다 순응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일본만의 고유한 특징이며 미국과의 차이를 알기 쉽게 보여준다 (Smith et al, 2001).

정서 통제 이론이 비교 문화 연구에 효율적 방법이라는 하지만 일련의 조사에 따르면 정서적 의미 세 차원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이 한국에서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EPA라는 차원만으로 사회 정체성<sup>11)</sup>에 부여되는 정서적 의미를 표현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EPA 세 차원은 개인 간 상호 작용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의 차원을 배제하고 있는데 곧 1차

---

10) <http://www.indiana.edu/~socpsy>에서는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는 마젤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웹사이트에서 설문 조사 참여가 가능하다.

11) 사회 정체성이란 사람들이 자신이나 상대방을 파악할 때 각기 개별적이고 독특한 개체로 파악하기보다는,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소속된 하나의 구성원으로 파악하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적인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견주어 그 대상자의 사회적 역할을 정형화 하는 것이다 (최셋별 외, 2003).

집단(Gemeinschaft)과 2차 집단(Gesellschaft)에서 다르게 드러나는 인간 상호 작용의 측면을 구별하지 못 한다고 비판한다. 오스굿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사람들이 은행원이나 검사를 친구나 연인과 같은 차원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 이는 2차 집단뿐만 아니라 1차 집단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차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 2002). 본고와 같은 자료로 발표된 논문(최섯별 외, 2003)에서도 이와 관련된 방법론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스굿의 연구에서 100개의 사물 목록(100-object-list)은 의미 공간(meaning-space)의 모든 영역으로부터의 표본이라고 간주될 수 있도록 피, 과일, 희망, 아버지, 죽음, 결혼 등의 다양한 사물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목록에 포함된 단 11개의 사회 정체성이 사회 관계를 대표하는 표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조사에 포함된 변수의 숫자와 종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 차원의 보편성이란 오스굿이 수행한 조사의 맥락에서만 받아들여져야 하며, 다른 일련의 사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회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친밀성 (sociability), 책임성(responsibility), 활동성(activity), 권력성(power) 네 가지 차원으로 드러났다 (최섯별 외, 2003).

본고에서는 정서 통제 이론을 적용하여 신뢰의 작동 기제를 밝히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여 정서 통제 이론의 범문화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자한다.

## 2. 신뢰의 차원에 대한 이론들

‘공동체’를 희망하는 사회학에서 ‘신뢰’는 사회학의 역사를 관류하는 주체이다. 계급의식이 형성될 때 비로소 계급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 보았던 맑스(Marx, 1970)나 계약의 비계약적 요소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교환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뒤르켐(Durkheim, 1964)과 같은 고전 사회학자부터 현재 활발히 논의가 진행 중인 새로운 공동체를 외치는 사회 자본론에 이르기까지(Fukuyama, 1995; Putnam, 1993; Portes, 1998) 분석 단위로써 신뢰는 분명 유용한 개념이다.

신뢰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신뢰의 대상, 신뢰의 원인, 신뢰의 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자연 질서에 대한 믿음인가 또는 도덕 질서에 대한 믿음인가, 능력에 대한 기대인가 또는 의도에 대한 기대인가, 일반적 신뢰인가 또는 정보 의존적 신뢰인가 등 다차원적인 의미를 갖는다 (Yamagishi, 1998).

신뢰는 신뢰 대상자에 대한 '인지'와 더불어 좋고 싫음의 '정서' 그리고 인지와 정서를 기반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대상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김우택 & 김지희, 2002). 또한 신뢰는 신뢰 주체의 인지와 더불어 정서를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신뢰 대상에 대한 인지나 정서뿐만 아니라 행위의 차원, 곧 개인의 평가 및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뢰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Barber 1983).

경제학에서 신뢰는 신뢰 대상자가 자신에게 유익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고 제공되는 정보를 해석하는 인지 과정에 집중하여 신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신뢰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은 행위자가 신뢰의 결과에 대한 효용을 계산하여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의 여부를 신뢰의 근거로 보는 합리적 선택론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 관점에 대하여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사회 규범이나 도덕성 같은 공유된 가치 체계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사회학에서 제기되었다. 신뢰를 다른 행위자나 행위자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신뢰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박찬웅, 1999). 신뢰는 고립되어 존재하는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개인들의 상호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집합적 속성이라는 것이다 (Granovetter, 1985). 그러나 사회학의 기존 논의들은 여전히 '신뢰'의 생성을 인지적, 계산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즉각적인 혜택, 일회적인 보상은 아닐지라도 사회 규범에 의한 개인의 규제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신뢰'는 '사회 자본'으로 쉽게 전환되곤 한다. '제재에 근거한 신뢰'는 본질적 의미에서 신뢰라 볼 수 없다 (박통희, 1999).

본고에서는 '신뢰'는 타인에 대한 정보의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을 포함한 사회적 감정'이라고 정의한다 (Earle & Cvetkovich, 1996). 인간 의식에서 작용하는 형태로써 인지와 정서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쉬운 문화적 맥락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곧, 행위자가 특정한 보상을 기대하는 개인 수준의 계산이 아니라 특정 사회 내에서 축적된 경험에 근

거하여 판단하는 문화 수준의 신뢰를 측정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목사'와 미국에서 '목사'는 다른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목사를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목사를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다른 문제이다. 특정 문화, 특정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개인을 부각시킬 경우에 신뢰가 반드시 인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개인이 경험하는 신뢰는 사람에 대한 신뢰(trust in people)와 제도에 대한 신뢰(trust in institution)로 나눌 수 있다 (Giddens, 1990). 팩든은 사적 신뢰를 가족, 친척 등에 연관된 것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신뢰로 정의하고 사적 신뢰에 기반을 두어 기대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공적 신뢰로 확장된다고 하였다 (Pagden, 1988). 안정된 제도는 특정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며 특정한 행위를 제약하여 일탈을 제재하므로(김용학 & 손재석, 1998) 공적 신뢰가 다시금 사적 신뢰의 전제가 된다. 이어서 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양측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커는 신뢰가 과정 기반 신뢰, 특성 기반 신뢰, 제도 기반 신뢰의 세 가지 방식으로 생산된다고 보았다. 1) 과정 기반 신뢰는 좋은 평판을 얻거나 선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와 같이, 과거 또는 앞으로 기대되는 교환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측정될 수 있다. 2) 특성 기반 신뢰는 가정환경이나 민족성과 같은 인물의 특성에 관련된 것으로 측정된다. 그리고 3) 제도 기반 신뢰는 개인이나 회사의 고유 속성(회계사 공증)이나 중개 장치 등 공식적인 사회 구조에 관련된 것으로서 측정된다 (Zucker, 1986). 미국에서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많은 해외 이민의 유입과 빈번한 국내 간 이주로 사회의 이질성이 증가함에 따라 과정 기반 신뢰는 붕괴하였고 대신에 제도 기반 신뢰로 보충 또는 대체되었다. 합리적인 관료 조직의 확산, 전문적인 신용제도, 재정 중개 기관이나 정부 등의 서비스 경제, 규제와 입법조치 등과 같은 미국 초기 산업 형성기의 구조적 조건들이 제도

기반 신뢰를 생산했다는 것이다. 주커의 과정 기반 신뢰와 특성 기반 신뢰를 사람에 대한 신뢰로, 제도 기반 신뢰를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미국 사회에서 과정 기반 신뢰가 붕괴되면서 제도 기반 신뢰가 들어서는 과정을 분석한다.

주커의 논의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우선하게 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은 현대 사회가 구성원들의 동일한 가치와 규범의 공유가 사회의 통합의 기초로 작용하는 기계적 연대에서 이질화된 개인들의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유기적 연대로 이행했다는 뒤르켐의 주장이나(Durkheim, 1964) 점차 목적 합리적 행위가 보편적인 형태가 된다는 베버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Weber, 1991). 이러한 경험 연구의 의의는 큰 것이지만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경험 연구는 현상의 재진술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팩스톤은 사회 자본의 한 가지 구성 요소로서 신뢰를 들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로 이분화한 지표로서 신뢰를 측정하였다. 미국의 사회 자본이 감소하고 공동체가 쇠퇴하고 있다는 퍼트남의 주장에 대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였을 뿐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Paxton, 1999). 주커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제도에 대한 신뢰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주커와 팩스톤의 연구는 미국 사회 내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회와의 비교 연구에서는 선진 산업 사회가 여전히 높은 신뢰 사회임을 보여준다.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과 동아시아 한국, 일본 4개국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선진 산업 사회는 제도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석춘 외, 2002). 덴마크와 스웨덴은 제도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도 높고 한국의 경우는 사람에 대한 신뢰만이 높았다. 북유럽과 같이 발전된 국가에서, 개인주의 문화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상승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반면에 동아시아 발전 국가이면서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일본과 한국에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한국 사회에서 사적 신뢰(사람에 대한 신뢰)와 공적 신뢰(제도에 대한 신뢰)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론을 보여준다. 이재혁(1998)은 팩트의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에서 한국 사회에서 공적 신뢰의 부재가 사적 신뢰의 강화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강한 연고주의는 일제와 박 정희 시대를 지나면서 국가가 시민 사회를 통제하고 효율적인 자원을 동원하고자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가 가진 막강한 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개인의 합리적 행위가 거시 수준에서 공적 제도를 불신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은 후쿠야마식의 단순한 저신뢰 사회가 아니라 낮은 공적 신뢰와 높은 사적 신뢰를 보여주는 연줄 사회로 이해되어야 한다. 김지희(2002) 역시 각종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에 대한 신뢰의 경우 강한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혈연 집단 내의 신뢰는 강한 반면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사회적 신뢰의 경우에 있어서도 법규범과 절차의 정당성 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신뢰 역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총체적인 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 연구의 검토에서 보듯이 신뢰의 구조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신뢰의 구조가, 곧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는 한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3.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정서 통제 이론’이라는 방법론에 근거하여 한국과 미국 양국의 문화 내에서 신뢰가 어떠한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비교 문화 연구이다. 신뢰를 연구함에 있어서 정서 통제 이론은 개인의 경험 및 정서 차원에 초점을 맞춘다. 1) 개인들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서를 확인하는 사건을 경험한다 2) 사건이 그러한 정서를 유지하지 않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자신과 타인을 재정의 한다 3) 정서를 확인하는 사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은 정서 합리성의 원칙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 세 가지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Heise, 2001). 여기서 정서는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설정되었을 뿐 인지나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개인의 정서는 대상에 대한 평가와 인지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것이고 또한 상응하는 행위로 연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습득한 개인의 정서적 차원을 통계적 방법으로 도식화하는 것이다. 곧 개인의 정서적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위를 왜 하는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예측 할 수 있게 한다.

정서 통제 이론을 적용하면 신뢰가 이미 존재하는 현상으로 당연시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차원을 탐색함으로써 신뢰가 발생하는 기제를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사람에게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1차 집단 정체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제도의 행위자로 구성된 2차 집단 정체성을 구분한다. 1차 집단에 대한 신뢰를 사람에 대한 신뢰로, 2차 집단을 제도에 대한 신뢰로 이해하는 것은 신뢰 연구의 선례를 따른 것이다 (Fukuyama, 1996 ; Paxton, 1999). 팩스톤의 경험 연구 역시 제도의 행위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sup>12)</sup>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누나와 건축가는 다른 정서적 차원, 곧 EPA가 다른 척도를 보일 것이다. 1차 집단 정체성과 2차 집단 정체성에 대한 평가는 다른 정서적 차원을 구성할 것이고 이는 사람에게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차이 나는 원인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신뢰의 EPA차원이 어떠한 동일성과 차이성을 보이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

12) 제도에 대한 신뢰는 세 가지 일반 제도, 곧 조직화된 종교, 교육 체계, 정부로 간주했으며, 여기서 정부는 의회(Legislature)와 행정기관(Executive)으로 분리하였다. 각각의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몇몇 제도들을 거명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당신은 그들을 매우 신임합니까, 약간 신임합니까, 거의 신임하지 않습니까?”<sup>1)</sup>(I am going to name some institutions in this country. As far as the people running those institutions are concerned, would you say you have a great deal of confidence, only some confidence, or hardly any confidence at all in them?) (Paxton,1999)

【표 7】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위한 분석틀

국가별 \ 신뢰 차원	사람에 대한 신뢰 1차 집단 정체성	제도에 대한 신뢰 2차 집단 정체성
한국 사례 요인분석	요인의 구성과 특징 A	요인의 구성과 특징 B
미국 사례 요인분석	요인의 구성과 특징 C	요인의 구성과 특징 D

연구는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정서 통제 이론을 적용하여 신뢰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서 통제 이론 내 EPA차원이 범문화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사회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각각 요인분석 한 후에 양국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설명하는 요인들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 볼 것이다.

만약에 '검사' 라는 2차 집단 정체성에 대하여 양국에서 권력(potency)측면은 강하고 활동성(activity) 측면도 활발하다고 보았지만 가치평가(evaluation) 측면에서 한국은 나쁘고 미국은 좋다고 평가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한국과 미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며 수월한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더불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에 대한 가치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달라짐을 예측 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신뢰가 높다, 낮다는 거시 차원에서만 해석 해 왔다면 본 연구를 통해 신뢰가 왜 높고, 낮은지에 대한 미시 차원에 대한 탐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 (1) 한국과 미국 내의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의 비교

A와 B를 비교하면 한국에서 1차 집단 정체성과 2차 집단 정체성에 대한 신뢰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정서 차원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이어서 C와 D를 비교하면 미국에서 1차 집단 정체성과 2차 집단 정체성 대한 신뢰의 정도

의 차이가 있는지, 정서 차원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의 검토에서 보았듯이 어머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모두 좋다(good)이라고 평가한다고 해서 이를 같은 가치평가(evaluation)차원으로 볼 수 없다. 곧, 1차 집단의 정체성과 2차 집단의 정체성에 대해 다른 차원에서 응답을 하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고 이는 EPA 차원이 사회 정체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력이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 실제로 1차 집단에 대해서는 정서적·관계적 차원이 2차 집단에 대해서는 인지적·계산적 차원이 신뢰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다 (Martindale, 1971) 13). 또한 이러한 차이를 통하여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다른 정서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 (2) 한국과 미국간의 비교 문화적 접근

A와 C를 비교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정서적 차원이 다른 특징을 보이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B와 D를 비교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정서적 차원이 다른 특징을 보이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 문화 연구를 통해 정서 통제 이론가들의 전제인 EPA차원이 문화적 특수성에 상관없이 보편성을 지니는지를 검증 할 수 있다. 동일한 자료를 사용한 최섯별 외(최섯별 외, 2003)의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는 네 가지 차원이 추출됨을 보여 주었고 이는 한국만의 특수성이라 볼 수도 있다. 여기에 미국과의 비교를 추가한다면 이러한 결과가 한국만의 특수한 것인지, 아니면 EPA차원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13) 신뢰의 '관계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은 상대방에 대한 연대감과 동질성에 관련된 것이고 '계산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은 단기, 장기상의 이해 계산을 의미한다. (박통희, 1999)

## 제 3장 한국에서의 신뢰 구조

### 1. 신뢰의 정도 비교 분석

사람에 대한 신뢰는 한 개인이 맺고 있는 1차적 관계에 대한 신뢰이다. 신뢰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검토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한국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맺어진 1차 집단간 신뢰와 유대가 매우 강하다 (이재열, 2001; 이재혁, 1998; 이승환, 1999; 김지희, 2002). 이러한 한국 사회를 개인 간 신뢰는 형성되어 있으나 공적인 영역의 제도화된 신뢰는 부재하며 수직적인 위계에 따른 충성과 보호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사회, 곧 ‘마피아 사회’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재열, 2001).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서구 개인주의 문화 맥락에서 가능한 개념으로써 반드시 사적 신뢰의 과잉이 공적 신뢰의 구축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안에서 민주주의 역설, 곧 행위자들의 불신과 이기적인 갈등을 전제하고 만들어낸 제도인 불신 전제 체제(distrust based system)가 가능할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높은 한국에서 개인 간 불신의 가능성을 가정하고 규칙을 바로 세울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허해 보인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서구 개인주의 문화에서 시작된 민주화나 산업 혁명 과정에서조차도 인격 윤리<sup>14)</sup>가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장윤식, 2001).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국가, 시민 사회, 개인의 엄격한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적 신뢰를 공적 신뢰로 대체할 수 없고 따라서 연고주의와 같은 사적 신뢰가 가진 잠재력 활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석춘, 2003).

---

14) 인격 윤리 또는 인격주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접근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이러한 사회 교섭, 접촉 영역은 상호간의 일정한 유대, 신뢰, 의무감, 채무감 등의 설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유대 관계 자체로서 양자에게 긍정적인 가치나 의미를 지닌다. 인격 윤리 관계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적으로 기대되며 도울 수 있고 도와야 할 때 돕지 않는다는 도움의 필요로 할 때 청하지 않는 것은 기대 밖의 행위로 해석되며 그런 일이 계속 될 때 유대 관계에는 균열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익이나 규칙을 존중해서 친구를 희생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장윤식, 2001).

본 연구에서도 사적 신뢰가 높은 한국 사회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신뢰는 “믿을 수 있다 - 믿을 수 없다”라는 형용사에 대한 응답이다. 매우 신뢰하지 않는 경우 -4에서 매우 신뢰하는 경우 4까지의 점수 분포를 보이게 된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1.45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0.26이다.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는 역방향성을 보여 주는데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 - 한국

정체성	평균	분산	사례수	정체성	평균	분산	사례수
연인	3.00	1.26	21	장인	1.26	<b>2.16</b>	19
아내	2.95	1.57	20	선배	1.19	1.69	21
친구	2.71	1.38	21	고모	1.10	1.86	20
어머니	2.70	1.78	20	할아버지	1.05	1.96	20
남편	2.24	1.70	21	아들	0.95	1.93	19
아버지	2.15	<b>2.23</b>	20	사위	0.86	1.96	21
동생	1.75	1.94	20	며느리	0.85	1.60	20
시아버지	1.65	1.73	20	딸	0.76	1.48	21
동창	1.62	2.06	21	손자	0.62	<b>2.13</b>	21
이모	1.50	<b>2.09</b>	20	동향사람	0.55	2.04	20
후배	1.42	1.71	19	손녀	0.45	<b>2.11</b>	20
장모	1.40	1.82	20	시어머니	-0.05	1.70	20
할머니	1.37	1.92	19	Total	1.45	1.83	504

【표 8】은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를 정리한 것이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연인(3.00)으로 가장 높고 아내(2.95) > 친구(2.71) > 어머니(2.70) > 남편(2.24) 순으로 높은 신뢰를 보인다. 반면에 시어머니(-0.05) > 손녀(0.45) > 동향사람(0.55) > 손자(0.62) > 딸(0.76) 순으로 낮은 신뢰를 보인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첫째, 1차 집단 중에서도 혈연같이 생득적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높은 신뢰를 보였고 이에 비하여 결혼을 통해 얻어진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신뢰를 보였다. 둘째, 핵가족 단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친구나 학연으로 맺어진 관계들을 친척보다 더욱 신뢰하고 있다. 이는 학교 동료들이 동일한 생활공간 안에서 일상을 공유하고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에 신뢰의 경험이 축적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또한 손자와 손녀처럼 어린 아이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 중 아버지(2.23) > 장인(2.16) > 손자(2.13) > 손녀(2.11) > 이모(2.09) 순으로 분산값이 크고 1차 집단의 평균 분산값은 1.83이다. 본 연구에서처럼 상반되는 형용사에 응답하도록 했을 경우에는 한 정체성에 대해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양가적인 정서가 공존한다는 의미이다. 곧 분산값이 클수록 하나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들 정체성은 그 사회적 역할 및 기대가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확대 가족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빠르게 해체되었고<sup>15)</sup>(장현섭, 1993 ; 박민선, 2002) 높은 분산값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가장 큰 분산값을 기록한 아버지는 ‘가장’이라는 권위의 상징인 동시에 다정한 친구의 이미지로 변화하는 중에 있다 (최선헌 외, 2003). 아직 전형적인 아버지상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

15) 확대 가족이 해체되면 핵가족화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Goode, 1963) 한국 사회도 같은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여기서는 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자세한 논쟁은 생략할 것이다.

【표 9】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 - 한국

정체성	평균	분산	사례수	정체성	평균	분산	사례수
스님	2.21	1.62	19	대통령	-0.33	<b>2.18</b>	21
선생님	1.80	1.91	20	교수	-0.40	<b>2.35</b>	20
비행기 조종사	1.70	1.63	20	검사	-0.41	1.82	22
간호사	1.07	1.16	15	기자	-0.68	1.73	19
건축가	0.90	1.65	20	공인중개사	-1.27	1.83	15
판사	0.81	<b>2.25</b>	21	경찰	-1.35	1.69	20
의사	0.75	1.68	20	공무원	-1.55	1.57	20
목사	0.62	<b>2.36</b>	21	장관	-2.50	1.28	20
변호사	0.00	2.05	19	정치가	-3.10	1.00	21
교장	-0.10	<b>2.07</b>	21	국회의원	-3.10	1.52	20
				Total	-0.26	1.85	394

제도에 대한 신뢰는 스님(2.21)이 월등히 높았고 다음으로 선생님(1.80) > 비행기 조종사(1.70) > 간호사(1.07) > 건축가(0.90) 순이었다. 스님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에 비해 낮은 평균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가 낮은 정도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는데 국회의원(-3.10) = 정치가(-3.10) > 장관(-2.50) > 공무원(-1.55) > 경찰(-1.35)에 대한 신뢰 정도는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경우에서 낮은 신뢰를 보인 정체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차가 크다. 주로 정치나 행정 같은 국가 제도에 대하여 상당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스님에 대한 신뢰는 제도를 통틀어 가장 높은 반면에 목사에 대한 신뢰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분산값은 목사(2.36) > 교수(2.35) > 판사(2.25) > 대통령(2.18) > 교장(2.07) 순이었고 2차 집단의 평균 분산값은 1.85로 1차 집단 정체성의 평균 분산값에 비하여 약간 크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산업화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속히 진행되면서 1차 집단 내 유대가 변화하고 근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1차 집단 정체성들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2차 집단 정체성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에 이르는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인가? 지금까지 선행 연구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의 차이만을 보여 주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 통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신뢰의 높고 낮음을 설명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정서 통제 이론의 적용

먼저 요인 분석을 통하여 신뢰<sup>16)</sup> 변수를 제외한 51개 항목들 중 관련이 높은 항목끼리 묶는 주요인 분석(principal factors method)을 실시하여 4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4개의 요인은 각각 회전(varimax)시켜서 독립성이 검증된 변인들으로써 특정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들 중에서 Scree plot에서 확인 후<sup>17)</sup> 4개의 요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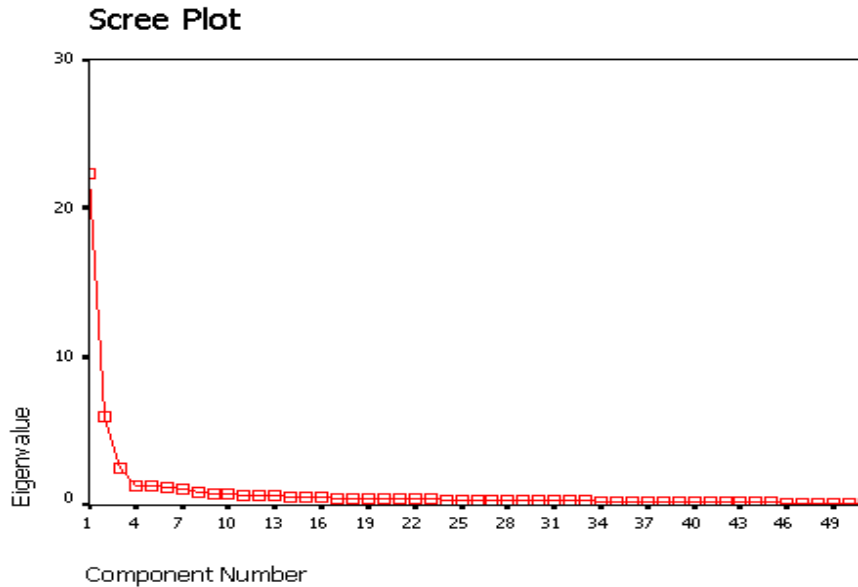
【표 10】 형용사에 대한 요인 분석 특정치와 변량 - 한국

Component	Initial Eigenvalues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22.266	43.658	43.658	13.570	26.609	26.609
2	5.961	11.688	55.346	9.963	19.536	46.144
3	2.445	4.794	60.140	4.147	8.131	54.275
4	1.325	2.599	62.739	3.082	6.043	60.317
5	1.295	2.539	65.278	2.170	4.254	64.572
6	1.172	2.298	67.576	1.325	2.599	67.170
7	1.057	2.072	69.648	1.264	2.478	69.648

16) "믿을 수 있다 - 믿을 수 없다"

17) 전체 분석 결과는 부록 3을 참조할 것

【그림 3】 요인 Scree plot - 한국



요인이 가치평가(evaluation), 권력(potency), 활동성(activity) 세 가지 차원이 아니라 네 가지 차원으로 추출된 것은 최셋별 외(200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치 평가(evaluation) 차원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 하나는 친밀성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성으로 명명된 요인에 관련된 것이다. 다음 표는 회전된 요인 행렬표(rotated component matrix)인데 요인 부하치 값이 높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요인 부하치 값이 높은 변인들은 속한 요인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에 따라서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권력성으로 명명하였다.

【표 11】 각 요인에 대한 주요 요인 부하치 - 한국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권력성
편하다/어렵다	.884	.134	.111	-.038
따뜻하다/차갑다	.861	.155	-.027	-.021
다정하다/냉담하다	.843	.198	.093	-.095
가깝다/멀다	.838	.181	.138	-.089
친하다/소원하다	.834	.145	.197	-.029
부드럽다/딱딱하다	.819	.261	.115	-.070
좋다/싫다	.802	.337	.105	.006

너그럽다/엄하다	.787	.261	.023	.022
반갑다/귀찮다	.770	.294	.191	-.046
사랑스럽다/밉다	.766	.239	.187	-.086
자상하다/무심하다	.740	.354	.023	.044
친절하다/불친절하다	.716	.335	.147	-.041
소중하다/하찮다	.700	.366	.160	.066
무섭다/무섭지않다	.689	-.054	.224	-.095
아름답다/추하다	.632	.368	.220	-.044
민주적이다/권위적이다	.631	.333	.324	-.137
귀엽다/징그럽다	.609	.117	.318	-.155
순종적이다/반항적이다	.206	.040	.057	-.023
현명하다/어리석다	.277	.770	.169	.151
똑똑하다/멍청하다	.145	.713	.346	.197
차분하다/들떠있다	.047	.709	.049	.154
철들다/철없다	.202	.686	-.010	.211
소신있다/소신없다	.190	.679	.237	.151
존경하다/멸시하다	.351	.676	.011	.280
훌륭하다/보잘것없다	.399	.674	.055	.150
교양있다/상스럽다	.273	.664	.209	.329
유능하다/무능하다	.156	.654	.366	.205
정직하다/부정직하다	.495	.642	.095	-.070
청렴하다/부패하다	.460	.608	.038	-.022
든든하다/못미답다	.487	.571	.156	.113
공정하다/불공정하다	.447	.569	.221	-.040
멋있다/촌스럽다	.361	.549	.320	.133
자랑스럽다/부끄럽다	.520	.549	.193	.065
정상적이다/이상하다	.469	.527	.151	.048
깔끔하다/구질구질하다	.214	.515	.430	.121
희생적이다/이기적이다	.483	.504	-.021	-.024
용감하다/비겁하다	.287	.476	.293	-.008
강하다/약하다	.106	.453	.240	.327
빠르다/느리다	.008	.053	.733	.041
활동적이다/수동적이다	.240	.209	.682	.109
젊다/늙다	.404	.123	.587	-.259
예리하다/둔하다	-.002	.502	.545	.179
진보적이다/보수적이다	.401	.364	.507	-.122
건강하다/허약하다	.318	.226	.495	.035
쌩쌩하다/무뚝뚝하다	.520	.124	.485	-.125
융통성있다/고집스럽다	.396	.432	.405	-.055
호탕하다/답답하다	.328	.270	.315	.140
권력있다/권력없다	-.259	.104	.046	.839
권위적/비권위적이다	-.222	.206	.044	.796
높다/낮다	.043	.391	-.009	.708
위엄있다/경박하다	-.065	.493	-.063	.639

이어서, 각각의 정체성에 대한 명명된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별 평균 점수를 구하여 신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신뢰를 종속 변인으로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권력성을 독립 변수로 하여 변수를 모두 투입하는 (enter)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아래와 같이 세울 수 있다.

$$Y(\text{신뢰}) = a + b_1F_1(\text{친밀성}) + b_2F_2(\text{책임성}) + b_3F_3(\text{활동성}) + b_4F_4(\text{권력성})$$

【표 12】 회귀 분석 결과 :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한국

	B	Std. Error	t	Sig. F
(Constant)	.709	.043	16.669	.000
책임성	.593	.043	31.925	.000
친밀성	.577	.043	31.060	.000
활동성	.101	.043	5.443	.000
권력성	.019	.043	1.049	.294
R <sup>2</sup>	.695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요인이 신뢰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 $p < .05$ )를 보여 주고 있으며 권력성은 의미 있는 상관관계( $p = 0.294$ )를 보이지 않아서 제외되었다. 신뢰에 대하여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요인의 신뢰에 대한 총 설명력은 69.5%의 설명력을 지닌다.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요인의 베타값으로 신뢰를 예측하기 위한 회귀 방정식은  $Y(\text{신뢰}) = 0.709 + 0.593\text{친밀성} + 0.577\text{책임성} + 0.101\text{활동성}$ 이다.

회귀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의 차이를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 3. EPA 차원 분석

#### 3-1 사람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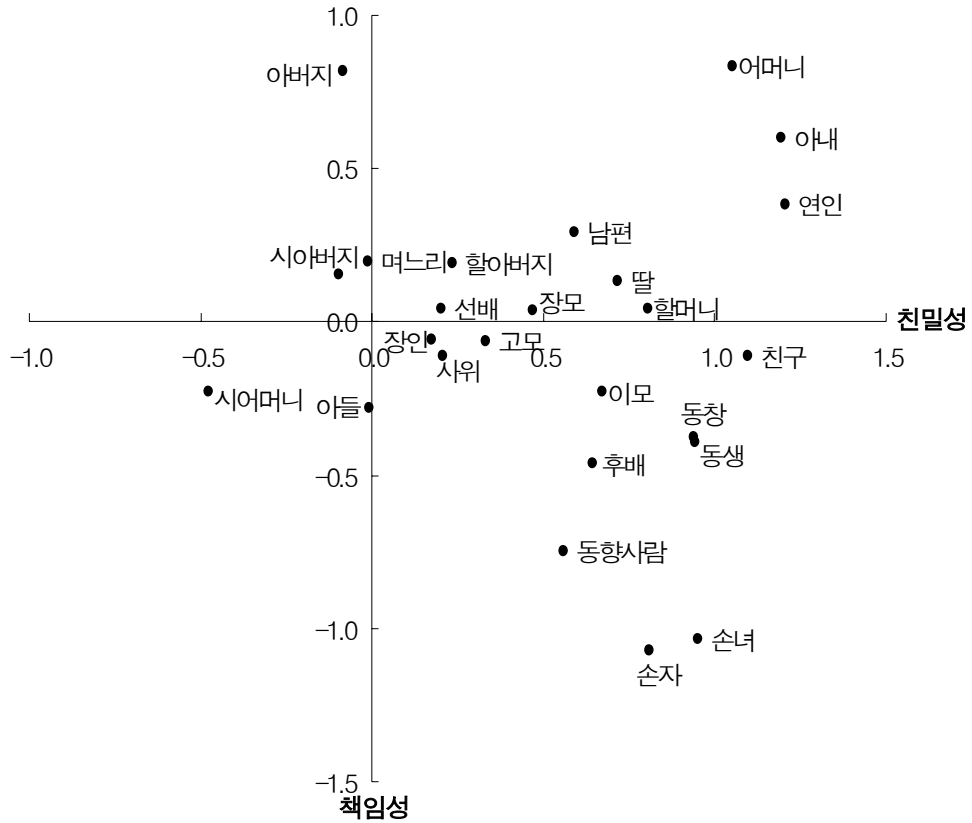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1차 집단의 친밀성, 능력, 권력, 활동성은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는가? 아래 표는 사람에 대한 신뢰로 이해할 수 있는 1차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이들 요인별 평균 점수<sup>18)</sup>를 정리한 것이다. 이어서 설명력이 높은 두 요인, 친밀성과 책임성을 양측으로 하여 신뢰 정도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분산표에 위치시켜 보았다.

【표 13】 1차 집단의 신뢰 및 각 요인별 평균 점수 - 한국

정체성	신뢰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권력성
연인	3.00	1.21	0.38	0.51	-0.09
아내	2.95	1.19	0.60	-0.01	-0.43
친구	2.71	1.10	-0.11	0.64	-0.31
어머니	2.70	1.05	0.83	-0.67	-0.05
남편	2.24	0.59	0.29	0.11	0.19
아버지	2.15	-0.09	0.82	-0.16	0.30
동생	1.75	0.94	-0.39	0.57	-0.23
시아버지	1.65	-0.10	0.16	-1.16	0.69
동창	1.62	0.94	-0.37	0.52	-0.13
이모	1.50	0.67	-0.23	0.07	-0.13
후배	1.42	0.64	-0.46	1.11	-0.73
장모	1.40	0.47	0.04	-0.55	0.18
할머니	1.37	0.80	0.05	-1.02	0.11
장인	1.26	0.17	-0.06	-0.61	0.59
선배	1.19	0.20	0.05	0.39	-0.28
고모	1.10	0.33	-0.06	-0.42	-0.44
할아버지	1.05	0.23	0.19	-1.17	0.47
아들	0.95	-0.01	-0.28	0.37	-0.21
사위	0.86	0.21	-0.11	0.19	-0.56
며느리	0.85	-0.01	0.20	0.35	-0.96
딸	0.76	0.72	0.13	0.28	-0.79
손자	0.62	0.81	-1.07	0.79	-0.80
동향사람	0.55	0.56	-0.75	-0.38	-0.41
손녀	0.45	0.95	-1.03	0.55	-0.67
시아머니	-0.05	-0.48	-0.23	-0.49	0.20

18) 요인별 평균 점수는 각 정체성에 대한 요인 점수들의 평균값이다.

【그림 4】 1차 집단의 요인 평균 점수 분산표 - 한국



1) 친밀성과 책임성이 모두 높은 1사분면에는 높은 신뢰의 대상인 어머니, 아내, 연인, 남편, 할아버지, 할머니, 딸, 선배, 장모가 위치해 있다. 친밀성과 책임성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친밀성은 낮지만 책임성이 높은 2사분면에는 아버지, 시아버지, 며느리가 위치해 있다. 아버지는 높은 신뢰를 보여주지만 예외적으로 친밀성이 낮으며 이는 가장 높은 책임성 점수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 【표 13】에 보면 아버지의 권력성 점수가 0.30으로 높은 것은 친밀성과 권력의 역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엄부자모에게 복종하는 자녀 세대라는 한국 사회의 가족 유형을 반영한다 (최셋별 외,

2003).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신뢰하기는 하지만 높지 않은 신뢰를 보이는데 이는 친밀성이 낮은 것과 관련된 것이다.

3) 친밀성도 낮고 책임성도 낮은 3사분면에는 시어머니와 아들이 있다. ‘시어머니’의 요인 평균 점수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대한 방증이며 별로 신뢰받지도 않는 정체성이다. ‘아들’ 역시 친밀성과 책임성 점수가 낮지만 이는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현실에 비하여 높기 때문으로 보이며 비교적 신뢰받고 있다.

4) 친밀성은 높지만 책임성이 낮은 4사분면에는 장인, 고모, 사위, 친구, 이모, 동창, 후배, 동생, 동향사람, 손자, 손녀가 위치한다.

5) 친밀성의 경우는 여성 정체성이, 책임성은 남성 정체성의 평균 점수가 높다.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아들보다는 딸이, 남편보다는 아내가,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 손자보다는 손녀, 장인보다는 장모, 시아버지보다 시어머니를 친밀하게 여긴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보다, 사위가 며느리보다 친밀하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으로 인한 부차적 관계에서 특히, 한국의 시댁 문화는 여전히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딸보다는 아들이,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지가 더욱 책임성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성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부부 사이에서 여성 정체성인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내가 남편보다 책임성 점수가 높고 장인, 장모의 경우도 책임성 점수가 역전되었다. 손자와 손녀의 경우도 손녀의 책임성 점수가 약간 높지만 비슷한 점수인데다 책임성 점수가 아주 낮다. 이는 아직까지 어린 아이를 독립심 있고 자율스런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아버지 쪽인 고모와 어머니 쪽인 이모에게서 이러한 남성, 여성의 차이가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이다. 고모와 이모는 친척 관계에서 표출되는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친밀성 점수는 이모가, 책임성 점수는 고모가 높다는 점

에서 그러하다. 고모나 이모나 가까운 친척이고 여성 정체성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남성 정체성의 특성과 여성 정체성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경우이다.

6) 1차 집단 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정도는 친밀성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책임성과 친밀성이 모두 높은 점수일 때 가장 신뢰하지만 친밀성이 낮고 책임성이 높은 정체성보다는 책임성이 낮더라도 친밀성이 높은 정체성을 신뢰함을 알 수 있다. 4사분면의 정체성들은 책임성은 낮지만 친밀성이 높아서 신뢰받는 정체성들이다. 비슷한 관계에 놓인 정체성을 예를 들어 보면, 책임성은 며느리의 점수가 높지만 며느리보다는 사위를 신뢰한다. 이는 사위를 며느리보다 친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배나 후배의 경우도 책임성은 선배를 높게 평가하지만 후배를 친밀하다고 여기므로 더욱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딸과 아들을 비교할 경우에는, 딸은 아들보다 친밀성 점수와 책임성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지만 아들보다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아들 중심, 장자 우선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들은 우리 집 사람,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이 내재화되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1차 집단간의 관계에서 친밀성과 책임성 점수가 높으면 신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책임성보다는 친밀성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한국 문화에서는 남성은 책임성이 있다고 여성은 친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양축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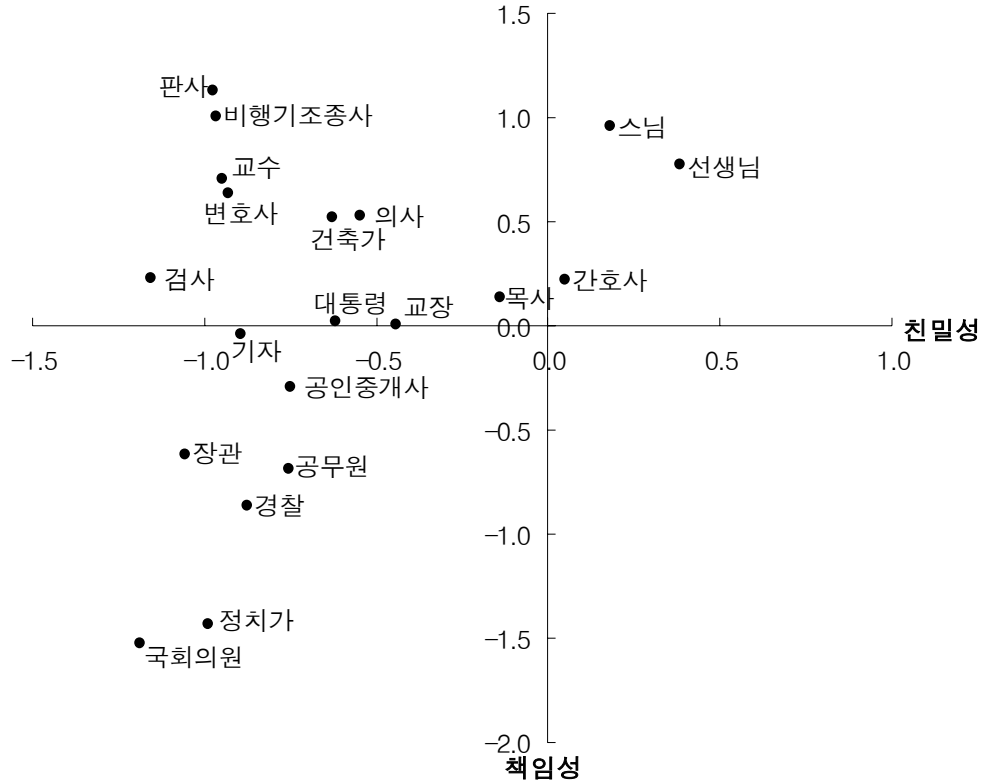
### 3-2 제도에 대한 신뢰

그렇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2차 집단의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권력성은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는가? 아래 표는 각각의 정체성에 대한 이들 요인별 평균 점수를 정리한 것이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설명력이 높은 친밀성과 책임성을 양측으로 하여 신뢰 정도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분산표에 위치시켜 보았다.

【표 14】 2차 집단의 신뢰 및 각 요인별 평균 점수 - 한국

정체성	신뢰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권력성
스님	2.21	0.18	0.96	-0.99	-0.12
선생님	1.80	0.38	0.78	-0.79	0.22
비행기조종사	1.70	-0.97	1.01	0.70	-0.35
간호사	1.07	0.05	0.22	0.55	-0.42
건축가	0.90	-0.63	0.52	0.91	-0.16
판사	0.81	-0.98	1.13	-0.34	0.59
의사	0.75	-0.55	0.53	-0.03	0.26
목사	0.62	-0.14	0.14	-0.24	0.23
변호사	0.00	-0.93	0.64	0.47	0.49
교장	-0.10	-0.45	0.01	-0.78	1.00
대통령	-0.33	-0.62	0.02	-0.11	0.71
교수	-0.40	-0.95	0.71	-0.35	0.89
검사	-0.41	-1.16	0.23	0.39	0.16
기자	-0.68	-0.90	-0.04	1.16	-0.68
공인중개사	-1.27	-0.75	-0.29	0.60	-0.02
경찰	-1.35	-0.88	-0.86	-0.17	-0.36
공무원	-1.55	-0.75	-0.69	-0.65	-0.27
장관	-2.50	-1.06	-0.61	-0.29	0.74
정치가	-3.10	-0.99	-1.43	-0.11	0.69
국회의원	-3.10	-1.19	-1.52	0.36	0.81

【그림 5】 2차 집단 정체성의 요인 평균 점수 분산표 - 한국



1) 책임성과 친밀성이 모두 높은 1사분면에는 스님, 선생님, 간호사가 위치해 있고 가장 신뢰가 높은 정체성들이다.

2) 책임성은 높지만 친밀성이 낮은 2사분면에는 판사, 비행기 조종사, 교수, 변호사, 건축가, 의사, 검사, 목사, 대통령이 있다. 판사, 비행기 조종사, 건축가, 의사, 목사는 신뢰 받는 정체성이고 변호사, 대통령, 교수, 검사는 불신 받는 정체성이다.

3) 친밀성이 낮고 책임성도 낮은 3사분면에는 기자, 공인 중개사, 장관, 공무원, 경찰, 정치가, 국회의원이 위치해 있다. 이들 정체성은 매우 불신 받는 정체성들로 기사를 제외하고서는 국가의 행정이나 정치에 관련된 제도들이다.

4) 친밀성은 낮고 책임성은 0이라 2사분면과 3사분면에 걸쳐 있는 정체성은 교장이다. 같은 교육 제도에 속해 있음에도 선생님은 친밀성도 높고 책임성도 높은 신뢰받는 정체성이지만 교장은 책임성과 친밀성 요인 평균 점수가 낮아서 불신 받는 정체성이다. 그리고 친밀성이 높지만 책임성이 낮은 4사분면에 속하는 2차 집단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5) 1차 집단 정체성과 2차 집단 정체성의 분산표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2차 집단 대부분의 정체성들은 친밀성은 낮은 편이고 책임성은 높은 편이다. 친밀성 요인 평균 점수는 스님, 선생님,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점수이다. 이 세 정체성을 제외한 2차 집단 정체성에 대한 친밀성은 대체적으로 모두 낮기 때문에 신뢰가 높고 낮음은 책임성 요인 평균 점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신뢰가 낮은 정체성인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경찰, 공인 중개사는 책임성 요인 평균 점수에서도 하위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제도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6)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은 모두 정치나 행정 등 국가 제도에 관련된 정체성들이다. 그나마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양호한 편인데 검사나 변호사에 비해 판사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다. 국가 제도보다는 비행기 조종사, 선생님, 건축가, 간호사, 건축가와 같이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게 드러난다.<sup>19)</sup>

---

19)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는 공공 부문과 구별되는 민간 부문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민간 부문(trust in private sector)은 사적 신뢰(private trust)가 아니라 제도적 영역에 대한 신뢰이다 (한준, 2002). 본고에서 사회 제도라는 것은 민간 부문에 대한 신뢰라는 개념을 빌려 온 것으로 사적 신뢰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사회 제도'라고 지칭하였다. 물론 국가-사회의 많은 부분이 중첩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 제도나 교육 제도는 사회 제도이지만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 사회가 복잡하게 얽히어 작동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병원이나 의료 보험 제도 또는 학교나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제도의 행위자를 중심으로 설

의료나 교통, 종교처럼 이미 국가/사회 구분에서 사회의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제도에 속하는 정체성에 대한 신뢰가 국가 제도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후쿠야마는 한국 사회가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1차 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에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사회 전반의 신뢰 역시 낮은 저신뢰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Fukuyama, 1996). 한국 사회에서 혈연을 넘어선 공적 신뢰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재한다는 후쿠야마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비판의 여지가 있다. 후쿠야마는 국가 제도와 사회 제도를 분리하지 않은 채 한국 사회 제도 전반이 불신 받고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불신 받고 있는 제도는 국가 제도이지 사회 제도가 아니다. 이미 경제나 사회 영역으로 흡수된 의료, 교육, 종교 제도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는 약하지만 신뢰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 제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은 오랜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왜곡된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면서 비롯된 것으로(김동노, 1997; 이재혁, 1998) 이러한 맥락을 제거한 채 한국을 간단하게 저신뢰 사회로 분류하는 것은 문화 결정론의 위험이 있다. 곧 저신뢰 문화가 발생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신뢰 구축을 위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 요인 평균 점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친밀성 요인 평균 점수까지 높은 스님, 간호사, 선생님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정체성이다.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신하지만 국가 제도보다는 사회 제도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 사회를 단순 저신뢰 사회로 분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문지가 구성되었으므로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 본래의 제도로 보고 이를 제외한 제도들은 사회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공 부문(국가 제도)의 신뢰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고 민간 부문(사회 제도)의 신뢰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과 직결된다 (한준, 2002). 그렇다면 한국에서 국가 제도에 대해 불신하는 것은 정부가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였다는 것이고 사회 제도에 대해 신뢰하는 것은 민간 부문에 경쟁력이 어느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소결

수집된 자료를 요인 분석한 결과 오스굿의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권력성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네 가지 요인과 신뢰 요인을 회귀 분석한 결과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요인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한국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친밀성에 의해서, 제도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에 의해서 좌우된다. 1차 집단 정체성에 대해서는 책임성 요인 평균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친밀성 요인 평균 점수가 높으며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2차 집단 정체성의 친밀성 요인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으며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는 책임성 요인 평균 점수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분석함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남성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의 차이이다. 남성 정체성은 책임성 요인 평균 점수가, 여성 정체성은 친밀성 요인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가정에서 중추를 담당하는 아내와, 어머니는 제외하고는 남성 정체성에 대한 신뢰가 여성 정체성보다 높다.

셋째, 제도에 대한 신뢰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제도를 불신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면서도 제도를 국가 제도와 사회 제도로 분류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전반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크게 불신 받는 제도는 국가 제도에 국한된다. 의료나 교육 제도 기타 전문 직업 단체는 비교적 신뢰받고 있으며 행정, 입법,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만이 매우 낮았다.

## 제 4장 미국에서의 신뢰 구조

### 1. 신뢰의 정도 비교 분석

지금까지 미국은 대표적으로 신뢰가 높은 사회로 분류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후쿠야마는 저서 『Trust』에서 미국이 고신뢰 사회에서 저신뢰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18~19세기 초 미국 기업들은 가족소유와 가족경영으로부터 출발했지만 1830년 미국 철도기업의 등장으로 미국 대륙이 이어지면서 경영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광대한 대륙에 펼쳐져 있는 철도 기업 운영 및 동반 형성된 은행과 화물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은 다층의 중간 경영자들을 거느린 대규모 기업으로의 변신한다. 초기 산업 사회 시기에 미국은 고신뢰 사회였는데 전혀 면식이 없는 동부, 서부, 북부, 남부 지역의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도 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신뢰가 확고하였다. 많은 미국기업들(IBM, AT&T, Kodak, Ford)이 80년대까지도 종신 고용 제도를 실시했고, 후견주의 태도로 종업원들을 대했다. 미국 사회의 신뢰 확립에는 엄격한 도덕적 훈련과 공동체훈련을 중시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미국사회의 공동체성이 점진적으로 붕괴되어 왔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난 편모가정의 극빈화 현상, 교회 출석율의 저하, 상호 신뢰의 약화 등이 증거들이다 (Fukuyama, 1996).

페트남 역시 미국내 자발적 결사체 참여율에 대한 다양한 양적 지표를 통하여 미국 사회에서 신뢰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동네 또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공적모임에 참가율이 1/3 이상 (1973년의 22%에서 1993년의 13%) 줄어들었으며, 시민적, 종교적 결사체의 회원들의 숫자도 급감하고 있다. 매주 교회에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1950년대의 48%에서 1970년대에는 41%로 줄어들었다. 대표적인 노동자들의 결사체인 노조의 가입률도 1952년에는 32.5%에 달했으나 1992년에는 15.8%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 자선 단체의 회원도 줄어들고 있다. 1964년 이

래 여성단체 총연맹의 회원은 반 이상 줄어들었고, 1969년 이래 여성유권자연맹의 회원도 42%나 감소하였다. 1970년 이래 보이스카우트의 회원은 26%, 적십자회원은 61% 감소한다. 볼링 리그의 감소가 자발적 시민적 결사체를 통한 공동체적 참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1980년과 1993년 사이에 볼링인구는 10% 늘어서 8000만 명이 일년에 적어도 한번 이상 볼링을 치지만, 볼링리그의 숫자는 40%나 격감한 것이다. 이제 미국인의 3%만이 볼링리그의 일원으로 정기적으로 볼링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볼링장에서 맥주와 피자를 들면서 사회적 교류를 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자기만의 여가를 즐기려는, 혼자 볼링 치는 사람들만 북적대고 있는 사실은 미국의 ‘사회 자본’<sup>20)</sup>의 감소를 상징한다(Putnam, 1995). 이에 대하여 공적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가 사적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를 대체해 가고 있을 뿐 신뢰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Zucker, 1986; Paxton, 1999). 그러나 조사 결과, 미국은 한국에 비하여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연구와 마찬가지로 신뢰는 여기서 신뢰는 “dependable 믿을 수 있다 - undependable 믿을 수 없다”라는 형용사에 대한 응답이다. 매우 신뢰하지 않는 경우 -4에서 매우 신뢰하는 경우 4까지의 점수 분포를 보이게 된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미국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1.67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1.97이다. 미국 사회는 여전히 높은 신뢰 사회이며 사람보다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다. 이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제로 점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 점 관계라는 최근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유석춘 외, 2002).

---

20) 퍼트남은 사회 자본과 신뢰를 등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 포르테스의 글을 살펴 볼 것. Portes, Alexandro. 1998, “Social Capital : It’s origins and Application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24

【표 15】 사람에게 대한 신뢰 정도 - 미국

정체성	평균	분산	사례수	정체성	평균	분산	사례수
Sweetheart	2.96	0.92	26	Sister	1.95	1.39	20
Friend	2.77	0.99	26	Brother	1.57	1.77	28
Grandmother	2.71	0.94	28	Mother-in-law	1.54	1.71	28
Mother	2.52	1.62	23	Daughter-in-law	1.26	1.25	23
Grandfather	2.52	1.59	23	Father-in-law	1.14	<b>2.06</b>	21
Wife	2.37	<b>1.84</b>	27	Grand daughter	0.70	1.51	27
Father	2.37	1.56	30	Daughter	0.43	<b>2.11</b>	21
Husband	2.28	1.77	29	High school classmate	0.23	<b>1.92</b>	30
Son-in-law	2.00	1.11	32	Grandson	0.07	<b>1.98</b>	28
Aunt	1.96	1.23	24	Son	0.00	1.52	28
				Total	1.67	1.54	522

【표 15】 는 사람에게 대한 신뢰 정도를 정리한 것이다. 사람에게 대한 신뢰는 연인Sweetheart(2.96) > 친구Friend(2.77) > 할머니Grandmother(2.71) > 어머니Mother(2.52) = 할아버지Grandfather(2.52) 순으로 높은 신뢰를 보였다. 반면 아들Son(0.00) > 손자Grandson(0.07) > 고등학교 동창High school classmate(0.23) > 딸Daughter(0.43) > 손녀Granddaughter(0.70) 순으로 낮은 신뢰를 보인다.

남자 정체성보다는 여자 정체성 곧, 남편 보다는 아내를,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형제보다는 자매, 아들보다는 딸을, 장인/시아버지보다는 시어머니/ 장모를 신뢰한다. 미국 사람들은 아들을 고등학교 동창보다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사람에 대한 신뢰의 평균 분산값은 1.54로 딸Daughter(2.11) > 장인/시아버지Father-in-law(2.06) > 손자Grandson(1.98) > 고등학교 동창High school Classmate (1.92) > 아내Wife(1.84) 순으로 평균 분산값이 크다. 단지 횡단 연구



의 분산값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신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는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내’를 제외하고는 분산값이 큰 정체성들은 모두 신뢰가 낮은 축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다.

【표 16】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 - 미국

정체성	평균	분산	사례수	정체성	평균	분산	사례수
Doctor	2.57	<b>2.00</b>	23	Prosecuting attorney	1.88	1.29	33
Pilot	2.53	1.66	36	Principal	1.83	1.76	24
Judge	2.41	1.30	29	Attorney	1.73	<b>2.15</b>	26
Nurse	2.28	1.14	32	Professor	1.34	1.47	29
Clergyman	2.07	1.84	27	Computer programmer	1.34	1.54	32
Teacher	2.00	1.63	32	Policeman	1.05	<b>2.19</b>	22
Architect	2.00	1.72	22	Congressman	0.75	<b>1.92</b>	28
President	1.93	<b>1.89</b>	29	Total	1.97	1.82	424

제도에 대한 신뢰는 의사Doctor(2.57) > 비행기 조종사Pilot(2.53) > 판사 Judge(2.41) > 간호사Nurse(2.28) > 성직자Clergyman(2.07) 순으로 높은 신뢰를 보이고 국회의원Congressman(0.75) > 경찰Policeman(1.05) > 컴퓨터 프로그래머 Computer programmer(1.34) = 교수Professor(1.34) > 변호사Attorney(1.73) 순으로 낮은 신뢰를 보였다. 이러한 신뢰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은 신뢰의 정도를 묘사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제도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여 주었고 다음은 판사나 변호사, 검사를 비롯한 사법 제도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여 주었다.

제도에 대한 신뢰의 평균 분산값은 1.82로 사람에 대한 신뢰의 평균 분산값보다 크다.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정체성보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정체성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 분산

값은 경찰Policeman(2.19) > 변호사Attorney(2.15) > 의사Doctor(2.00) > 국회의원 Congressman(1.92) > 대통령President(1.89) 순으로 크다.

위 결과를 보면, 미국 사회에서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는 후쿠야마나 퍼트남의 주장이나 사적 신뢰가 공적 신뢰를 대체한다는 주커나 팩스톤 주장이 맞는 것인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사회에 신뢰의 감소를 주장할 만한 경험적 증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나 제도에 대한 신뢰 모두 비슷한 평균값과 분산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신뢰가 변화하고 있음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의 평균값의 차이가 크고 사람에 대한 신뢰의 분산값만큼 제도에 대한 신뢰의 분산값이 변화해야 우리는 신뢰가 이동하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정 시기만을 조사한 횡단 연구로 연대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는 미국 사회에서 사람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모두 높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과 제도를 신뢰하는 것이 동일한 판단 기제나 정서에 의한 것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어서 사람이나 제도를 대표하는 정체성에 대한 EPA 차원을 분석할 것이다.

## 2. 정서 통제 이론의 적용

요인 분석을 통하여 '신뢰'<sup>21)</sup> 변수를 제외한 39개 형용사들 중 관련이 높은 형용사끼리 묶는 주요인 분석(Principal Factors Method)을 통하여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3개의 요인은 직각 회전(Varimax)시켜서 독립성이 검증된 변인들으로써 특정치(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들을 Scree plot에서 확인 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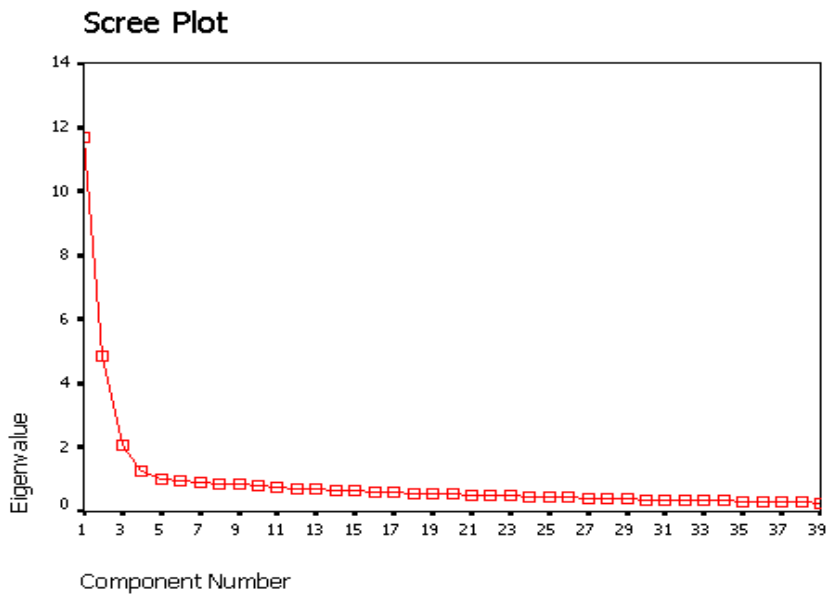
---

21) "dependable - undependable"

【표 17】 형용사에 대한 요인 분석 특정치와 변량 - 미국

Component	Initial Eigenvalues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11.677	29.940	29.940	7.772	19.927	19.927
2	4.857	12.454	42.394	6.564	16.832	36.759
3	2.089	5.355	47.749	3.325	8.527	45.286
4	1.238	3.175	50.925	1.909	4.896	50.182
5	1.034	2.652	53.576	1.324	3.395	53.576

【그림 6】 요인 Scree plot - 미국



한국 연구에서 네 가지 요인이 추출된 반면 미국에서는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오스굿의 가치 평가(evaluation), 권력(potency), 활동성(activity) 세 가지 차원이 아니라 가치평가(evaluation)의 두 차원인 책임성(responsibility)과

친밀성(sociability), 그리고 활동성(activity) 세 차원으로 다르게 드러났다. 아래 표는 회전된 요인 행렬표(rotated component matrix)로 요인 부하치 값이 높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요인 부하치 값이 높은 변인들은 속한 요인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네 가지 요인은 선행 연구에 따라서 책임성, 친밀성, 활동성으로 명명하였다.

【표 18】 각 요인에 대한 주요 요인 부하치 - 미국

	책임성	친밀성	활동성
fair/unfair	0.76	0.03	0.20
attentive/indifferent	0.69	-0.14	0.03
clean/corrupt	0.68	-0.03	0.05
comfortable/uncomfortable	0.68	0.25	-0.06
principled/unprincipled	0.65	-0.31	0.06
outstanding/mediocre	0.65	0.03	-0.14
selfless/selfish	0.64	0.04	0.24
warm/cold	0.64	0.47	0.14
dignified/frivolous	0.63	-0.30	0.06
friendly/unfriendly	0.63	0.44	0.01
normal/abnormal	0.63	0.06	-0.04
smart/dumb	0.60	-0.25	-0.04
praiseworthy/shameful	0.60	-0.01	0.07
composed/agitated	0.57	-0.15	0.09
strong/weak	0.51	-0.25	-0.28
nice/awful	0.51	0.34	0.13
young/old	-0.06	0.62	-0.40
tolerant/strict	0.22	0.60	0.07
powerless/powerful	-0.49	0.56	0.23
cute/ugly	0.39	0.53	-0.23
immature/mature	-0.61	0.53	-0.13
affectionate/unfeeling	0.55	0.53	0.09
soft/hard	0.21	0.52	0.33
rebellious/obedient	-0.30	0.48	-0.26
intimate/distant	0.50	0.46	-0.04
foolish/wise	-0.67	0.44	-0.17
vulgar/cultured	-0.51	0.26	-0.31
cowardly/courageous	-0.61	0.24	0.27
slow/fast	-0.33	0.11	0.58
passive/active	-0.33	0.14	0.48
weak/healthy	-0.55	-0.04	0.47
low/high	-0.39	-0.02	0.38

lifeless/lively	-0.52	-0.40	0.30
distant/close	-0.57	-0.42	-0.07
despised/respected	-0.69	0.04	-0.08
authoritarian/democratic	0.05	-0.42	-0.11
authoritative/non-authoritative	0.23	-0.65	-0.13
dishonest/honest	-0.71	0.02	-0.20
good/bad	-0.64	-0.06	-0.21

계속해서 각각의 정체성에 대한 명명된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별 평균 점수를 구하여 신뢰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신뢰를 종속 변인으로 책임성, 친밀성, 활동성을 독립 변수로 하여 변수를 모두 투입하는 (enter)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아래와 같이 세울 수 있다.

$$Y(\text{신뢰}) = a + b1F1(\text{책임성}) + b2F2(\text{친밀성}) + b3F3(\text{활동성})$$

【표 19】 회귀 분석 결과 :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미국

	B	Std. Error	t	Sig. F
(Constant)	1.754	.042	41.745	.000
책임성	.636	.042	26.986	.000
친밀성	.242	.042	10.280	.000
활동성	-.119	.042	-5.053	.000
R <sup>2</sup>	.477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요인이 모두 신뢰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 $p < .05$ )를 보여 주고 있으며 책임성은 63.6%, 친밀성은 24.2%, 활동성은 -11.9%의 설명력을 지닌다. 신뢰에 대한 책임성, 친밀성, 활동성 요인의 총 설명력은 47.7%이다.

책임성, 친밀성, 활동성 요인의 베타값으로 신뢰를 예측하기 위한 회귀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Y(\text{신뢰}) = 1.754 + 0.646\text{책임성} + 0.242\text{친밀성} - 0.119\text{활동성}$$

### 3. EPA 차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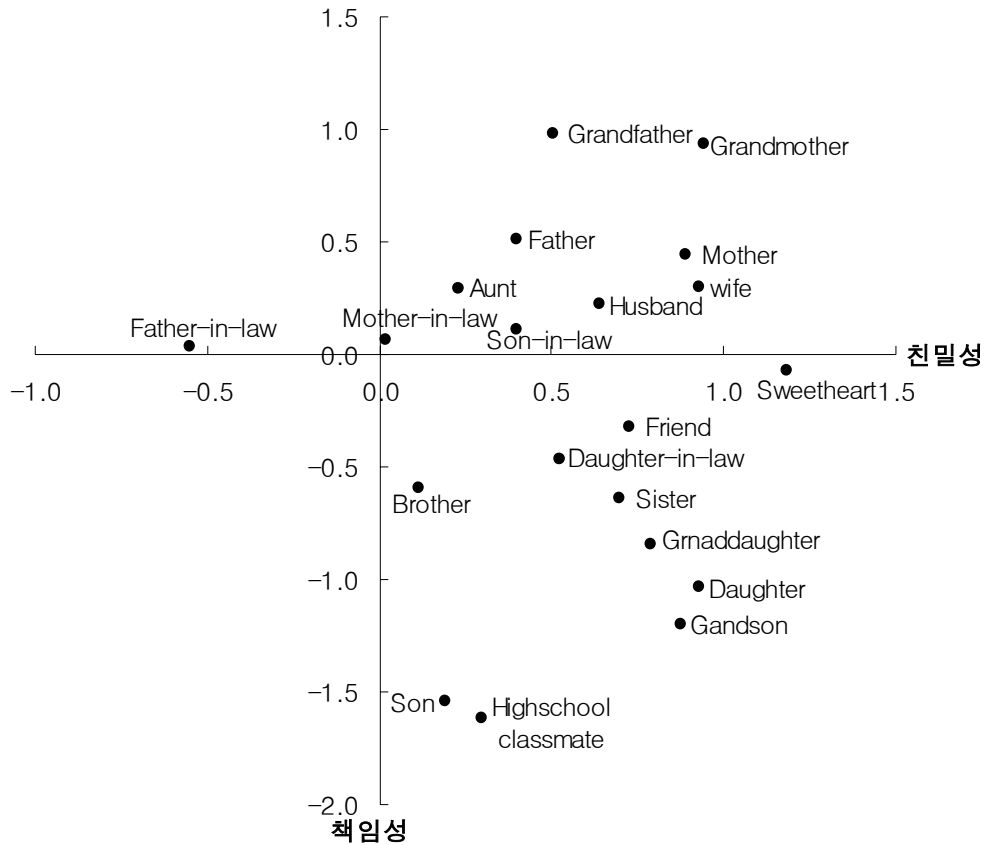
#### 3-1 사람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1차 집단의 활동성은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는가? 아래 표는 사람에 대한 신뢰로 이해할 수 있는 1차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이들 요인별 평균 점수를 정리한 것이다. 이어서 설명력이 높은 두 요인, 친밀성과 책임성을 양측으로 하여 신뢰 정도가 높은 순으로 분산표에 위치시켜 보았다.

【표 20】 1차 집단의 신뢰 및 각 요인별 평균 점수 - 미국

정체성	신뢰	책임성	친밀성	활동성
Sweetheart	2.96	-0.07	1.18	-0.23
Friend	2.77	-0.31	0.72	-0.45
Grandmother	2.71	0.94	0.94	0.74
Mother	2.52	0.44	0.89	-0.09
Grandfather	2.52	0.98	0.50	0.89
Wife	2.37	0.30	0.93	-0.24
Father	2.37	0.52	0.39	0.28
Husband	2.28	0.23	0.64	-0.09
Son-in-law	2.00	0.11	0.40	-0.04
Aunt	1.96	0.30	0.23	0.35
Sister	1.95	-0.63	0.69	0.45
Brother	1.57	-0.59	0.11	-0.64
Mother-in-law	1.54	0.07	0.01	0.42
Daughter-in-law	1.26	-0.46	0.52	0.10
Father-in-law	1.14	0.04	-0.55	0.47
Granddaughter	0.70	-0.84	0.79	-0.04
Daughter	0.43	-1.03	0.93	0.29
High school classmate	0.23	-1.62	0.30	-0.52
Grandson	0.07	-1.20	0.87	-0.09
Son	0.00	-1.54	0.19	-0.20

【그림 7】 1차 집단 정체성의 요인 평균 점수 분산표 - 미국



1) 책임성도 높고 친밀성도 높은 1사분면에 위치한 정체성은 할머니 Grandmother, 할아버지 Grandfather, 어머니 Mother, 아버지 Father, 아내 Wife, 숙모 Aunt, 장모/시어머니 Mother-in-law, 남편 Husband, 사위 Son-in-law이다. 1사분면에 있는 정체성들은 높은 신뢰 정도에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2) 책임성은 낮고 친밀성은 높은 4사분면에 위치한 정체성은 연인 Sweetheart, 친구 Friend, 며느리 Daughter-in-law, 형제 Brother, 자매 Sister, 손녀 Granddaughter, 손자 Grandson, 딸 Daughter, 아들 Son, 고등학교 동창 Highschool Classmate이다. 1

사분면에 있는 정체성들보다는 신뢰 정도가 낮지만 모두 신뢰받고 있는 정체성들이다.

3) 책임성이 높고 친밀성이 낮은 2사분면에는 장인/시아버지Father-in-law가 위치해 있고 책임성이 낮고 친밀성이 높은 4사분면에는 어떤 1차 집단 정체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친밀성의 경우는 여성 정체성이, 책임성은 남성 정체성의 평균 점수가 높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아들보다는 딸이, 남편보다는 아내가,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 장인/시아버지보다는 장모/시어머니, 사위보다는 며느리를 친밀하게 여긴다.

책임성의 경우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딸보다는 아들이,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 며느리보다는 사위가 더욱 책임성 있다고 생각한다. 예외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여성 정체성인 아내가 남편보다 책임성 점수가 높고, 장인/시아버지Father in Low, 장모/시어머니Mother in Low의 경우도 책임성 점수가 역전되었다.

손자와 손녀의 경우는 친밀성은 손자가 책임성은 손녀가 높아서 남성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을 구별하는 특징들과 무관하였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평가할 때에는 성별 특징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1차 집단 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정도는 친밀성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책임성과 친밀성이 모두 높은 점수일 때 가장 신뢰하지만 친밀성이 낮고 책임성이 높은 정체성보다는 책임성이 낮더라도 친밀성이 높은 정체성을 신뢰함을 알 수 있다.

신뢰가 높은 정체성은 남성보다는 여성인데 곧, 남편 보다는 아내를,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형제보다는 자매, 아들보다는 딸을, 장인/시아버지Father in Low 보다는 시어머니/ 장모Mother in Low를 신뢰한다. 이는 친밀성이 높은 여성 정체성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1차 집단 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친밀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1차 집단간의 관계에서 친밀성과 책임성 점수가 높으면 신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책임성보다는 친밀성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미국 문화에서는 남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높다고 여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친밀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남성 정체성 보다는 여성 정체성을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뚜렷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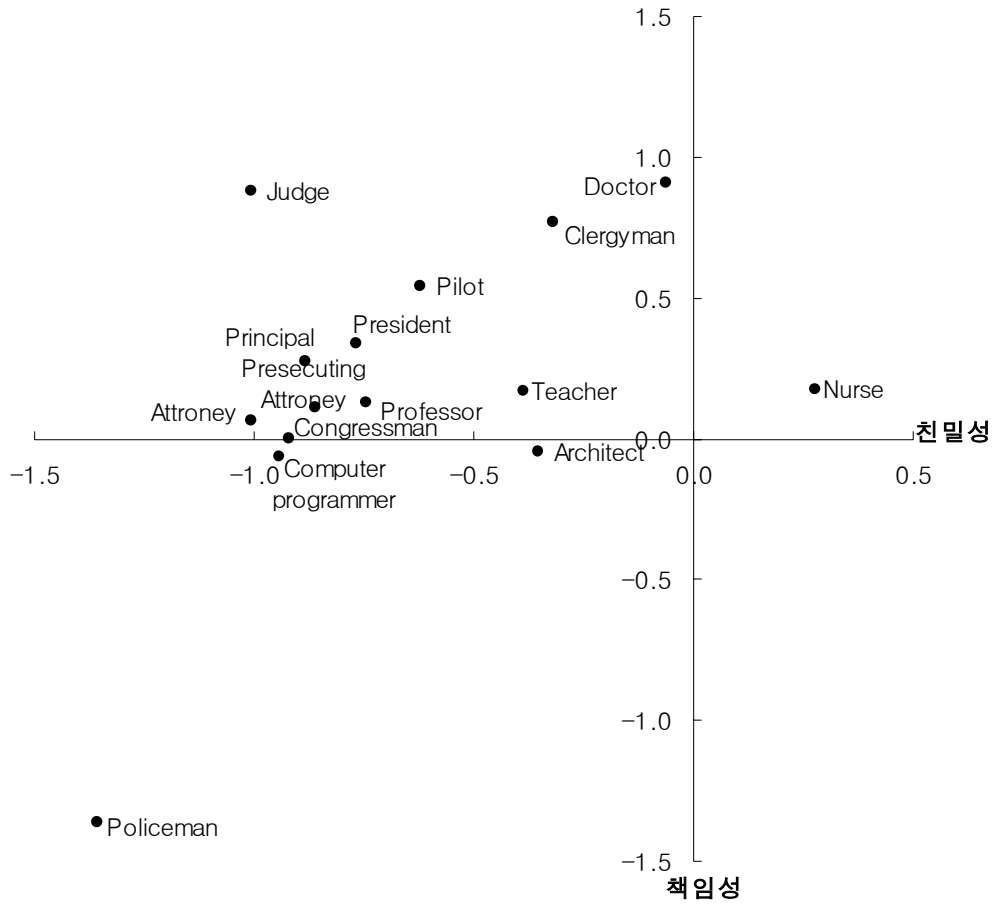
### 3-2 제도에 대한 신뢰

그렇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2차 집단의 책임성, 친밀성, 활동성은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는가? 아래 표는 각각의 정체성에 대한 이들 요인별 평균 점수를 정리한 것이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설명력이 높은 두 요인, 친밀성과 책임성을 양측으로 하여 신뢰 정도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분산표에 위치시켜 보았다.

【표 21】 2차 집단의 신뢰 및 각 요인별 평균 점수 - 미국

정체성	신뢰	책임성	친밀성	활동성
Doctor	2.57	0.91	-0.06	-0.60
Pilot	2.53	0.54	-0.62	-0.58
Judge	2.41	0.88	-1.01	-0.07
Nurse	2.28	0.18	0.28	0.18
Clergyman	2.07	0.77	-0.32	0.80
Architect	2.00	-0.04	-0.35	0.01
Teacher	2.00	0.17	-0.39	-0.02
President	1.93	0.34	-0.77	-0.09
Prosecuting attorney	1.88	0.12	-0.86	-0.25
Principal	1.83	0.28	-0.88	0.22
Attorney	1.73	0.07	-1.01	-0.76
Professor	1.34	0.13	-0.75	0.30
Computer programmer	1.34	-0.06	-0.94	0.33
Policeman	1.05	-0.23	-1.36	-0.31
Congressman	0.75	0.00	-0.92	-0.05

【그림 8】 2차 집단 정체성의 요인 평균 점수 분산표 - 미국



1) 책임성도 높고 친밀성도 높은 1사분면에는 간호사Nurse가 있다. 간호사 Nurse 외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2차 집단에 대해 친밀성이 높은 정체성은 없다.

2) 책임성이 높고 친밀성은 낮은 2사분면에는 의사Doctor, 판사Judge, 목사 Clergyman, 비행기 조종사Pilot, 대통령President, 검사Prosecuting Attorney, 교장 Principal, 선생님Teacher, 변호사Attorney, 교수Professor가 위치해 있고 신뢰가 높은 정체성들이다.

3) 책임성이 낮고 친밀성도 낮은 3사분면에는 건축가Architect, 국회의원 Congressman, 컴퓨터 프로그래머Computer Programmer, 경찰Policeman이 있다. 책임성도 친밀성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체성 역시 비교적 신뢰받고 있다.

4) 1차 집단 정체성과 2차 집단 정체성의 분산표는 한 영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매우 분명하다. 1차 집단 정체성들은 친밀성이 높은 1, 4사분면에, 2차 집단 정체성들은 친밀성이 낮은 2, 3분면에 모여 있다. 미국에서 2차 집단 정체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루 신뢰하고 있는 편이다. 여기서 강한 신뢰를 보이느냐, 약한 신뢰를 보이느냐는 책임성 점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책임성 요인 평균 점수가 높은 2사분면에 위치한 정체성들은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미국 사람들은 국가 제도나 사회 제도에 대해 구별 없이 신뢰하고 있다.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판사, 변호사, 검사 등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교육 제도나 행정,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도 높아 사회 제도와 국가 제도에 대한 고른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이 높은가 낮은가에 달려있다. 미국 사회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는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도 높은 편이며 사회 제도와 국가 제도 모두 매우 신뢰받고 있다.

## 4. 소결

미국에서 수집된 자료를 요인 분석한 결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요인이 추출되기는 하였으나 오스굿의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책임성, 친밀성, 활동성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세 가지 요인과 신뢰 요인을 회귀 분석한 결과 책임성, 친밀성, 활동성 요인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미국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친밀성이, 제도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이 설명력이 크다. 1차 집단 정체성에 대해서는 책임성 요인 평균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친밀성 요인 평균 점수가 높으며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2차 집단 정체성의 친밀성 요인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으며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는 책임성 요인 평균 점수에 기대고 있다.

둘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분석함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남성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의 차이이다. 남성 정체성은 책임성 요인 평균 점수가, 여성 정체성은 친밀성 요인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여성 정체성에 대한 신뢰가 남성 정체성보다 높다.

셋째, 미국 사회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는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 제도나 국가 제도인가에 상관없이 고른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사회에서는 신뢰 점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2차 집단 정체성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사람에 대해서나 제도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고신뢰 사회이다.

## 제 5장 한국과 미국의 비교

앞 장에서 다루었듯이 한국과 미국에서 신뢰가 나타나는 양상이 분명 달라 보인다. 이는 방법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부터 드러나는데 본격적인 비교 전에 먼저 연구 방식에서 드러난 차이를 언급하고자 한다.

요인 분석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요인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여덟 개 요인이, 미국에서는 다섯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사회 정체성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미국보다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한국의 사회 관계들이 미국에 비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고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 대한 경험적 증거이기도 하다.

분석 대상을 특정치(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들을 Scree plot에서 확인하여 한국은 네 개, 미국은 세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친밀성(sociability), 책임성(responsibility), 활동성(activity), 권력성(power)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책임성(responsibility), 친밀성(sociability), 활동성(activity)으로 명명하였다.

위의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스굿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먼저 오스굿이 선택한 100개의 사물 목록(100-object-list)은 다양한 사물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사회 정체성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Kim, 2002 ; 최섯별 외, 2003). 한국에서는 요인 자체가 네 개인데 활동성, 권력성에 더불어 가치평가(evaluation) 차원이 친밀성과 책임성으로 나누어진다. 미국의 경우는 권력성 요인은 추출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가치평가(evaluation) 차원이 친밀성과 책임성 두 개로 나누어진다. 사회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evaluation) 차원이 1차 집단을 평가하는 ‘친밀성’과 2차 집단을 평가하는 ‘책임성’이 분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오스굿의 가치평가E, 권력P, 활동성A 세 차원이 세계 어디서나 공통일 것이라는 가정도 수정되어야 한다. 한국에는 권력성 차원이 추출되지만 미국

에는 추출되지 않는 것은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들 간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서열이나 위계가 중요시 되지만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다. 호프세드는 권력거리가 크면 집단주의적이 되는 경향이 있고 권력거리가 작으면 개인주의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Hofsede, 1995). 여기서 권력거리<sup>22)</sup>가 멀다는 것은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조직은 권력 집중적이고 상명하달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문화에서 권력성 차원이 추출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개인주의 문화 맥락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정서 통제 이론가들이 EPA 차원의 범문화성을 연구의 전제로 수용하기 전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절에서는 연구 분석틀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신뢰 구조에 대해 비교해 볼 것이다.

## 1. 한국 :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 비교

한국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는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여 준다. 사람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1.45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0.26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사람에 대한 신뢰나 제도에 대한 신뢰나 친밀성과 책임성 요인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를 보인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친밀성 요인이, 제도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 요인이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결정적이었다.

사람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남성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주로 책임성이 높고, 여성은 친밀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남편보다 아내를 보다 신뢰하지만 이를 제외한 남녀 쌍(할아버지-할머니처럼, 아들-딸)을 이루는 정체성들은 여성 정체성보다 남성 정체성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22) 제도나 조직의 힘없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를 기대하고 수용하는 정도 (Hofsede, 1995)

제도에 대한 신뢰는 행정이나 정치 같은 국가 제도에 대해서는 심한 불신을 보여주지만 의료, 교육, 종교 같은 사회 제도는 상당한 신뢰를 보여준다. 한국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가 낮은가를 논할 때 국가 제도와 사회 제도를 분리하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람에 대한 신뢰의 평균 분산값은 1.83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의 평균 분산값은 1.85로 거의 같다. 사람에게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1차 집단 정체성들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2차 집단 정체성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에 이르는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1차 집단 정체성의 분산값의 크기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동질성에 기반한 기존 유대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차 집단 정체성에 대한 분산값의 크기는 한국 사회가 근대 제도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시행착오를 거치고 중임을 짐작케 한다. 근대 국가 제도에 대한 불신이 유독 강한 것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 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미국 : 사람에게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 비교

미국은 조사 결과 사람에게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에게 대한 신뢰의 평균값은 1.67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의 평균값은 1.97로 사람보다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간 높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친밀성이, 제도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더욱 뚜렷한데 분산표를 보면 1차 집단 정체성들은 친밀성이 높은 1, 4분면에, 2차 집단 정체성들은 친밀성이 낮은 2, 3분면에 모여 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분석할 때 주요 특징은 남성 정체성은 대체로 책임성이 높다고 여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친밀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남성 정체성 보다는 여성 정체성을 더욱 신뢰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국가 제도나 사회 제도에 대해서 고르게 신뢰하고 있는데 의사나 간호

사를 포함한 의료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판사, 변호사, 검사 등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교육 제도나 행정,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 제도에 대한 신뢰가 매우 안정되어 있다.

사람에 대한 신뢰의 평균 분산값은 1.54, 제도에 대한 신뢰의 평균 분산값은 1.82로 차이가 난다. 1차 집단 정체성들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신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신뢰가 감소했다는 주장이나 신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의 평균값의 차이가 크고 사람에 대한 신뢰의 분산값만큼 제도에 대한 신뢰의 분산값이 변화해야 우리는 신뢰가 이동하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번 조사는 그러한 추측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 3. 한국과 미국의 사람에 대한 신뢰 비교

사람에 대한 신뢰는 한국이 1.45, 미국이 1.67로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제도에 대한 신뢰보다 높기는 하지만 미국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그것은 한국 연구에서는 높은 신뢰를 보여준 정체성(연인=3.00)과 가장 낮은 신뢰를 보여주는 정체성(시어머니=-0.05) 사이의 격차가 미국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정체성(연인=2.96) 가장 낮은 신뢰를 보여주는 정체성(아들=0.00) 사이의 격차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평균 분산값(=1.83)과 미국의 평균 분산값(=1.54)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한다. 곧, 한국 사람들은 신뢰하는 사람은 매우 신뢰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몹시 불신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사람에 대한 신뢰는 친밀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 남성 정체성은 책임성이 높고 여성 정체성은 친밀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은 신뢰가 상위를 기록한 정체성에서는 여성 정체성(어머니, 아내 등)을 더욱 신뢰하지만 그 외에는 남성 정체성을 여성 정체성보다 신뢰한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남성 정체성보다는 여성 정체성을 보다 신뢰하는 경향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어린 아이들을 신뢰하지 않고 성별에 따른 구별되는 특징을 부여하지 않는 점은 양국에서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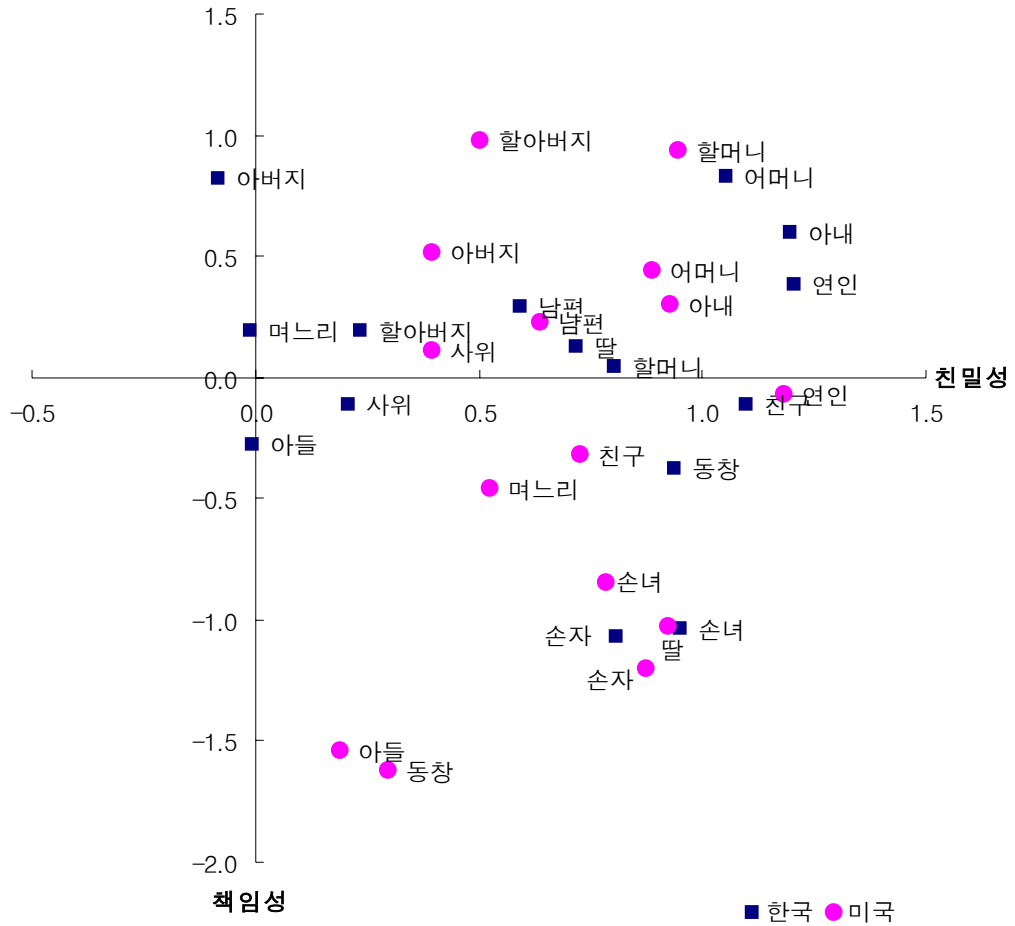
다음 표는 한국과 미국간에서 대등한 비교가 가능한 정체성들의 요인별 평균 점수를 정리한 것이다.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사회 정체성을 지시하는 단어들이 세분화되어 있다. 미국의 Mother-in-law는 시어머니와 장모로, Father-in-law는 시아버지와 장인으로, Aunt는 숙모, 고모, 이모로 나누어져 호칭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동향사람’은 한국과 미국의 등가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체성들을 제외한 14개 정체성이 한국과 미국의 비교 분석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추출된 요인들 중 ‘친밀성’과 ‘책임성’만을 분석 요인으로 설정하였는데 ‘권력성’은 미국에서 추출되지 않았고 ‘활동성’은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정적(+) 방향성을, 미국에서는 부적(-) 방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표 22】 한국과 미국의 요인별 평균 점수 - 사람

한국 정체성	신뢰	친밀성	책임성	미국 정체성	신뢰	친밀성	책임성
연인	3.00	1.21	0.38	Sweetheart	2.96	1.18	-0.07
친구	2.71	1.10	-0.11	Friend	2.77	0.72	-0.31
아내	2.95	1.19	0.60	Wife	2.37	0.93	0.30
남편	2.24	0.59	0.29	Husband	2.28	0.64	0.23
어머니	2.70	1.05	0.83	Mother	2.52	0.89	0.44
아버지	2.15	-0.09	0.82	Father	2.37	0.39	0.52
할머니	1.37	0.80	0.05	Grandmother	2.71	0.94	0.94
할아버지	1.05	0.23	0.19	Grandfather	2.52	0.50	0.98
며느리	0.85	-0.01	0.20	Daughter-in-law	1.26	0.52	-0.46
사위	0.86	0.21	-0.11	Son-in-law	2.00	0.40	0.11
딸	0.76	0.72	0.13	Daughter	0.43	0.93	-1.03
아들	0.95	-0.01	-0.28	Son	0.00	0.19	-1.54
손녀	0.45	0.95	-1.03	Granddaughter	0.70	0.79	-0.84
손자	0.62	0.81	-1.07	Grandson	0.07	0.87	-1.20
동창	1.62	0.94	-0.37	Highschool classmate	0.23	0.30	-1.62

【그림 9】 한국과 미국의 1차 집단 정체성의 요인 평균 점수 비교



1) 가족 문화의 특징

‘할아버지 - 할머니’의 경우 미국에서 친밀성과 책임성 점수가 높고 따라서 신뢰도 높다. 반면 ‘아버지 - 어머니’의 경우 한국에서 책임성 점수가 높고 친밀성 점수는 ‘어머니’가 높고 ‘아버지’는 현저히 낮다. 여기서 부부(아버지-어머니)가 조부모와 자식을 모두 돌보는 한국과 조부모가 자립할 수 있는 미국의 가족 문화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의 친밀성, 특히 책임성 점

수가 낮은 것은 조부모의 흔들리는 위상을 반영한다. 한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책임성 점수는 가장 높지만 아버지의 친밀성 점수는 1차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은 한국에서 부모(아버지-어머니)가 가족의 주축이지만 ‘아버지’의 가정 내에서 내밀한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아내’의 경우, ‘남편’은 한국과 미국에서 친밀성과 책임성이 엇비슷한 점수를 보여준다. 그러나 ‘아내’는 한국에서 친밀성과 책임성 점수가 눈에 띄게 높고 더욱 신뢰받는 존재인데 ‘아내’라는 호칭이 가족 내 지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아내’가 가정에 충실한 모습으로 정형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주부들은 감정적 자원과 사적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편이다. 주부들은 자녀의 사랑을 차지함으로써 감정적 자원을 강화하고 남편이 일상 생활에서 주부들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사적 자원을 확보한다 (조혜정, 1991). 산업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가 남자에게 맡겨지고 집안일을 사소한 것으로 보는 유교 전통과 결합하면서 가정대소사들이 아내에게 인계되었다는 것이다. 앞서서 아버지의 ‘친밀성’ 점수가 1차 집단 내에서 최하위에 머무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것이 한국에서 ‘아내’가 가정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이유이다.

자녀 세대(아들-딸)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아들’보다 ‘딸’의 친밀성 점수와 책임성 점수가 모두 높지만 한국에서는 ‘아들’을, 미국에서는 ‘딸’을 신뢰한다. 한국에서 ‘아들’이 친밀성 점수와 책임성 점수와 별개로 신뢰가 높은 것은 부계 중심의 가부장 문화 아래서 장자로서의 ‘아들’, 노후를 의지할 ‘아들’이라는 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교 원리에 입각한 가부장권 중심의 수직적 위계 관계라는 한국 가족의 특징은 산업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부계 중심의 확대 가족적인 가족주의 성향으로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김현주, 2002). 그러나 미국에서 ‘아들’은 1차 집단에서 가장 낮은 신뢰를 받는 정체성이고 오히려 ‘딸’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아들’이 가계를 계승한다는 의식이 없으므로 친밀성이 높은 ‘딸’을 신뢰하는 것이다.

## 2) 한국의 고부 관계

‘사위-며느리’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친밀성 점수는 낮지만 책임성 점수가 높고 신뢰 정도도 낮아서 생득적 관계에 비해 소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며느리’의 요인별 평균 점수는 한국의 고부 관계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이다. 한국에서는 ‘사위’가, 미국에서는 ‘며느리’가 친밀성이 높고 한국에서는 ‘며느리’가, 미국에서는 ‘사위’가 책임성이 높다. 한국 가족에서 ‘며느리’가 담당하는 역할은 과중하지만 시댁과의 관계 설정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sup>23)</sup> 효자 아들, 장남은 이에 헌신하는 며느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부장제 아래서 고부 관계는 계속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3) 가족 외 관계의 특징

한국과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체성인 동시에 친밀성이 높은 정체성은 ‘연인’ 그리고 다음 ‘친구’이다. 한국에서는 ‘친구’의 책임성 점수가 낮고 미국에서는 ‘연인’의 책임성 점수가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대학생 집단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래 집단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연인과 친구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창’은 미국에서는 ( $=0.23$ ), 한국에서는 ( $=1.62$ )으로 한국에서 신뢰가 더욱 높다. 물론 미국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한정되어 한국의 ‘동창’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 친밀성이 유지되는 것은 동창과의 상호 접촉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진학 후 거리상 만나기가 힘들다는 미국의 지리적 특성과 연고를 통해 자원에 접근하려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복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23) ‘시아버지 - 시어머니’ ‘장인 - 장모’와 함께 분석했으면 한국과 미국의 문화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었을 것이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등가 비교가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4. 한국과 미국의 제도에 대한 신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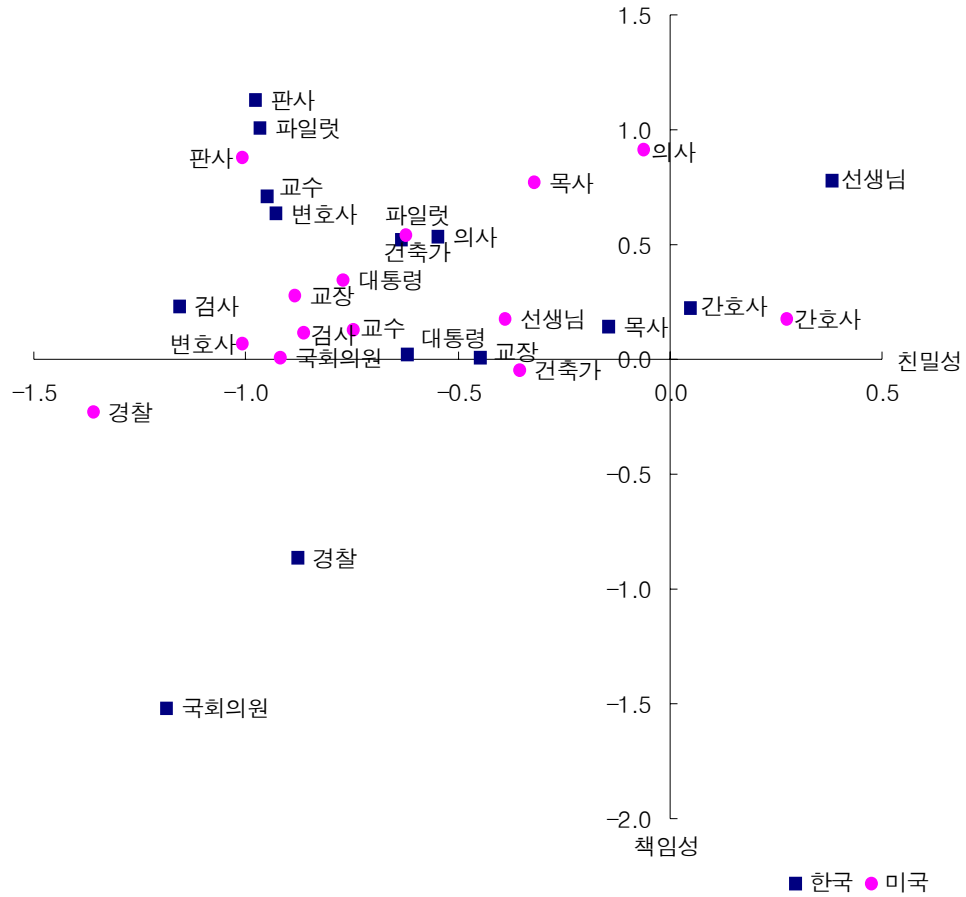
제도에 대한 신뢰는 한국은 평균 -0.26, 미국은 평균 1.97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평균 분산값은 한국 1.85, 미국 1.82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다.

한국, 미국 양국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것은 책임성이다. 책임성 요인 평균 점수가 높으면 신뢰하고 낮으면 불신한다. 한국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전반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가장 불신 받는 제도는 국가 제도에 국한된다. 의료나 교육 제도 기타 전문 직업 단체는 비교적 신뢰받고 있으며 행정, 입법,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만이 매우 낮았다. 미국 사회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는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 제도나 국가 제도인가에 상관없이 고른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 23】 한국과 미국의 요인별 평균 점수 - 제도

한국 정체성	신뢰	친밀성	책임성	미국 정체성	신뢰	친밀성	책임성
선생님	1.80	0.38	0.78	Teacher	2.00	-0.39	0.17
비행기조종사	1.70	-0.97	1.01	Pilot	2.53	-0.62	0.54
간호사	1.07	0.05	0.22	Nurse	2.28	0.28	0.18
건축가	0.90	-0.63	0.52	Architect	2.00	-0.35	-0.04
판사	0.81	-0.98	1.13	Judge	2.41	-1.01	0.88
의사	0.75	-0.55	0.53	Doctor	2.57	-0.06	0.91
목사	0.62	-0.14	0.14	Clergyman	2.07	-0.32	0.77
변호사	0.00	-0.93	0.64	Attorney	1.73	-1.01	0.07
교장	-0.10	-0.45	0.01	Principal	1.83	-0.88	0.28
대통령	-0.33	-0.62	0.02	President	1.93	-0.77	0.34
교수	-0.40	-0.95	0.71	Professor	1.34	-0.75	0.13
검사	-0.41	-1.16	0.23	Prosecuting attorney	1.88	-0.86	0.12
경찰	-1.35	-0.88	-0.86	Policeman	1.05	-1.36	-0.23
국회의원	-3.10	-1.19	-1.52	Congressman	0.75	-0.92	0.00

【그림 10】 한국과 미국의 2차 집단 정체성의 요인 평균 점수 비교



1) 먼저 그래프 상에서 미국은 2차 집단 정체성들이 친밀성은 낮고 책임성은 높은 2사분면에 모여 있는 반면에 한국은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에 산재된 분포를 보인다. 미국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에 한국에서는 신뢰받거나, 불신 받는 정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국가 제도와 사회 제도에 구별 없이 고른 신뢰를 받고 있으며 오직 '간호사'만이 친밀성 요인 평균 점수가 +이고, '경찰'만이 책임성 요인 평균 점수가 -인 것이 특징적이다.

2) 한국의 사회 제도를 대표하는 정체성들 선생님, 비행기 조종사, 간호사, 의사, 건축가는 미국보다 신뢰 정도는 약간 낮지만 오히려 높은 책임성 요인 평균 점수를 보인다. 사회 제도들이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다. 단지 ‘목사’가 낮은 책임성 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미국이 기독교 문화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국가 제도로는 유일하게 ‘판사’가 신뢰받는 정체성이다.

3) 한국과 미국에서 가장 거리가 먼 정체성은 ‘선생님’이다. 미국에 비하여 한국에서 ‘선생님’은 친밀성과 책임성이 높고 매우 신뢰받고 있다. 반면 ‘판사’의 위치가 양국에서 가장 근접해 있다.

4) 대통령, 검사, 경찰, 국회의원과 같이 한국의 국가 제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주로 근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

일제 식민지 시기 제국주의 통치는 전통적 공동체가 무너지고 한국인들간 유대와 결속, 협동, 신뢰가 의도적으로 파괴되었다. 공동체의 파괴를 통해 일제는 상부상조하는 신뢰적 분위기가 충만했던 관계들을 제거해 버렸으며 친일 동조 세력을 이용한 분할 통치(divide and rule) 방식을 통해 식민지 주민들간 이간질과 상호간 불신, 대립을 조장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김인영, 2002). 특히 일제의 선별적 포섭 정책은 국가 제도에 대한 불신을 악화시키고 가족, 친족 중심의 신뢰 구조를 강화시킨다.

박정희 정권 당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발전 국가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 제도에 대한 불신은 제도화된다. 국가의 경제 개입은 개인들이 상호 작용하는 관계망을 상호 협력의 형태에서 배타적 경쟁의 형태로 바뀌었으며 지배 집단들은 도덕성이 상실된 지도력에 의존하였다. 결국 국가의 경제 개입이 편향된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개인들의 의식 구조와 사회적 행위의 형태가 왜곡되었고 애초에 국가가 목표했던 정당성의 확보도 제한된 범위로 국한되었다 (김동노,1997). 경제 발전을 통해 급격히 부가 증가했음에도 경제적 부의

분배에 있어서 국가가 적절한 규칙을 만들지 못했고 일상화된 편법과 불법은 국가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킨다. 국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불신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은 정부 정책의 효과성 감소로 연결되며, 효과성이 감소하면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생산된다 (김병섭, 1884).

본 자료를 통해서도 이러한 통시적인 고찰이 어렵다. 그러나 정서 통제 이론을 따르자면, 한국 문화에서 국가 제도에 대한 불신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불신의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어 개인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정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시적인 고찰은 가능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이 '불신'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신뢰의 경험보다는 불신의 경험이 확대해서 지속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 (Earle & Cvetkovich, 1996).



## 5. 소결

한국과 미국의 연구 결과 비교를 통해 이론적 차원 및 비교 문화 차원에서 연구 의의를 정리하였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정서 통제 이론의 EPA 차원이 범문화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가와 사회 관계를 보여주는 정체성에도 타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한국에서는 친밀성(sociability), 책임성(responsibility), 활동성(activity), 권력성(power)으로 미국에서는 책임성(responsibility), 친밀성(sociability), 활동성(activity) 요인이 추출되었기 때문이다. 요인의 수가 다른 것은 EPA 차원의 범문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것이고 가치평가(evaluation) 차원이 1차 집단을 평가하는 ‘친밀성’과 2차 집단을 평가하는 ‘책임성’이 분리되는 것은 개인의 맺고 있는 사회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력을 갖지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사람에 대한 신뢰’를 비교하였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미국이 한국보다 공고한 신뢰를 보여주는데 신뢰의 평균값이 한국이 1.45, 미국이 1.67이었고 평균 분산값도 한국이 1.83, 미국이 1.54로 나타났다. 요인 평균 점수 분산표를 그려 보면,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부계 중심의 가부장 문화를 미국은 전형적인 핵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미국보다 ‘친구’나 ‘동창’같은 관계가 돈독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제도에 대한 신뢰’는 가장 대비되는 지점인데 신뢰의 평균값이 한국은 -0.26, 미국은 1.97이었다. 평균 분산값은 한국 1.85, 미국 1.82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국가 제도나 사회 제도가 고루 신뢰받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사회 제도는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지만 국가 제도는 심한 불신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정서 통제 이론에 입각해서, 한국에서 국가 제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불신의 경험이 역사상 축적되어서 일반화된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라 설명하였다.

## 6장 연구의 의의 및

###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다른 사회, 다른 문화에서는 ‘신뢰’의 구조와 양상이 다르게 구성될 것이라는 가설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비교 문화 연구의 양적 방법론인 ‘정서 통제 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의 정서적 차원을 분석하였다. 개인을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깊숙이 내면화하고 있는 행위자로 간주하고 따라서 ‘신뢰’는 개인이 손익을 계산하는 인지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문화가 반영된 개인의 정서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본 연구는 그간 ‘신뢰’에 관한 사회학 연구들이 소홀히 다룬 문화적 맥락에서 ‘신뢰’를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과 종전 연구들이 사회 현상 기술에 치중하였으나 여기서는 ‘왜 신뢰하는가’라는 개인의 동기를 분석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연구 결과,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신뢰’는 분명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곧 1차 집단의 두터운 신뢰가 2차 집단으로 확장되지 못 하는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의 특색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상호 상승하는, 1차 집단의 얇은 신뢰가 제도의 규칙성과 공정성을 통해 보완되는 개인주의 문화의 특색을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의 상이성이 아니다. 양국의 문화 차이에 따라 ‘신뢰’의 모습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논의가 끝난다면 ‘문화 결정론’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모두 풍부하고 한국은 항상 사람에 대한 신뢰는 과잉되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부재할 것이라 체념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 사회가 전혀 통합되지 못하고 불신이 난무하는 상황을 볼 때 ‘신뢰’의 회복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정하고 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신뢰도 제도에 의존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개인과 개인 간 관계에서 신뢰를 가정하고 있다. 친한 사람끼리의 거래에서 공증을 받는 것처럼 제도에 기대는 일은 사실 드물 것이다. 따라서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신뢰'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주장하듯이 우선 제도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가의 사회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지만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신뢰는 높다. 그렇다면, 국가가 지금처럼 사회에 끊임없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불신'의 확산에 기여할 뿐이다. 일제 식민지 시기와 발전 국가 시기를 거치면서 과잉 성장한 국가는 사회를 식민화하고 황폐화시켰다(김동노, 1997)는 지적처럼 국가에서 사회로의 지나친 개입은 사회의 자율스런 조정 능력을 상실하게끔 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 갈등들...지역주의, 세대 갈등, 보혁 대립, 이익 집단의 범람, 남북 분단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직접 앞장서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사회가 스스로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비록 지난하고 지루한 과정일지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비로소 '신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을 해 본다.

마지막으로, 같은 방식의 조사가 수행된 적이 없어서 통시상의 분석이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조사가 꾸준히 실시되어 데이터가 축적되면 한국 문화를 보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하여 연구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수월한 연구를 위하여 대학생을 표본 집단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연구의 가정인 문화적 가치를 체화한 개인이라는 점에서, 대학생이 응답의 정확도가 높다는 점에서는 적절하지만, 연구 결과 대학생 또래 집단의 특성이 뚜

렸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이라는 포괄적 범주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군과 직업군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또한 한 사람이 100개의 정체성을 모두 답하려면 분량이 수백 장이 넘게 되므로 응답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4개에만 대답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100개의 정체성에 대하여 25명이 대답하였으므로 개인 간 편차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흡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 문화 맥락에서 '신뢰'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도움 받은 글들

### 1. 국내 문헌

- 김동노, 1997, “국가의 정당성 결여가 생활 세계의 왜곡”, 『현상과 인식』 21(1)
- 김병섭, 1984,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 신뢰성 확보”, 『현대사상연구』 1
- 김용학·손재석, 1998. “미시적 신뢰와 거시적 위험 사상”, 『사상』 37,  
사회과학원
- 김우택·김지희, 2002. “신뢰의 개념과 신뢰 연구의 맥락”,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 미시적 접근』, 소화
- 김인영, 2002. “한국과 이탈리아의 저신뢰 비교”, 김인영 편, 『한국 사회 신뢰  
와 불신의 구조 : 거시적 접근』, 소화
- 김지희, 2002.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 김우택·김지희 편, 『한국 사회 신뢰  
와 불신의 구조 : 미시적 접근』, 소화
- 김현주, 2002. “부부관계”, 한국 여성 사회 연구소 편,  
『가족과 한국 사회-변화하는 한국 가족의 삶 읽기-』, 경문서
- 박민선, 2002. “다양한 가족과 가족의 미래”, 한국 여성 사회 연구소 편,  
『가족과 한국 사회-변화하는 한국 가족의 삶 읽기-』, 경문서
- 박찬웅, 1999. “경제 위기의 사회적 충격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사회 비평』 19, 나남
- 박통희, 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33(2), 한국 행정 학회
- 유석춘, 1998. “동양과 서양, 그리고 자본주의“ 『사상』 10(1), 사회과학원
- 유석춘·장미혜·배영, 2002. “사회 자본과 신뢰 : 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동서연구 14(1), 연세대 동서 문제 연구원
- 유석춘·배영·정병은, 2003. 『사회 자본 : 이론과 쟁점』, 그린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사상』 37, 사회과학원
2001. “의리인가 계약인가”, 『현대 한국 사회 성격 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 이재혁, 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32, 한국 사회학회
- 장현섭, 1993.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사 연구회 편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문학과 지성사
- 조혜정, 1981. “가족 관계 : 여성의 취업 여부와 계층에 따른 비교적 고찰”,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차재호 · 정지원, 199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 심리학회지』, 한국 심리학회
- 최셋별 · 이명진 · 김재운, 2003. “한국 가족 관련 정체성에 대한 정서적 의미로 살펴 본 한국 가족의 구조와 변화 양상”, 2003 한국사회학회 국제 학술 대회 발표문
- 최준식, 2000. “한국적 집단주의의 실체”, 『사회비평』 25, 나남
- 한준, 2002. “민간 부문과 신뢰”, 김인영 편,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 거시적 접근』, 소화

## 2. 국외 문헌

- Barber, Benjamin. 1983. *The Logic and Limit of Trust*, New Brunswick, N.J. : Rutgers University Press
- Dong-no Kim, “The transformation of Familism in Modern Society”, IJS
- Durkheim, Emile. 1964.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lated by George Simpson. New York: The Free Press
- Earle, T.C. & Cvetkovich, G. 1996. *Social Trust: Toward a Cosmopolitan Society*. Westport, CT: Praeger.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perty*. New York : Free Press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 of Modernity*.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ode, William J. *World Revolution and Family Forms*, London, Tavistock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1
- Heise, D. R. 1979. *Understanding Events: Affect and the Construction of Social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ise, D. R. 2001. "Project Magellan: Collecting Cross-cultural Affective Meanings Via the Internet. *Electronic Journal of Sociology*: 5(3)
- Hofstede, Geert. 1995. *Cultures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 , (차재호,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 Marx, Karl. and Engels. 2001, *German Ideology*, (박재희 역, 『독일 이데올로기』, 청년사)
- Jae-On, Kim. 2003, "Cross-Cultural Study of Social Identities: Re-examining the Dimensionality of Affective Meaning", unpublished
- Landford, Tom and MacKinnon, Neil J. "The Affective Bases For the Gendering Of Traits : Comparing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63(1)
- MacKinnon, Neil J. 1994. *Symbolic Interactionism as Affect Control*.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amela, Paxton.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pp88-127
- Portes, Alexandro. 1998, "Social Capital : It's origins and Application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24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청시 외 역.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이탈리아의 지방 자치와 시민적 전통』, 박영사)
- Rotter, Julian B. 1967. "A new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Trust", *Journal of Personality* Vol 35. 615-665
- Osgood, Charles E., William, H, May, and Murray S. Miron. 1975. *Cross-Cultural Universals of Affective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mith-Lovin, Lynn, and D. R. Heise. 1988. *Analyzing Social Interaction: Advances in Affect Control Theory*. New York: Gordon and Breach Science Publishers.
- Smith. W. Herman and Takakori Matsuno Shuuichirou Ike, 2001, "The Affective Basis of Attributional Processes among Japanese and America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64(2), 180-194
- Weber, Max 1991. "The Social Psychology of World Religion", (임영일 · 차명수 · 이상률 역), "세계 종교와 경제 윤리", 막스 베버 선집, 까치)
- Yamagishi ,T .and Yanagishi, M. 1994.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8, 129 - 166
- Yamagishi, Toshino. 1998. *Structure of Trust*, Tokyo Daigaku Shuppankai, (김의철 · 박영신 · 이상미 역, 2001. 『신뢰의 구조-동서양의 비교-』, 교육과학사)
- Zucker, Lynne G.1 986. "The Production of Trust,"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8. JAI Press, pp.53-111



## 부록 1. 예비 조사 설문지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다음 각 단어 또는 인물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느낌을 **하나만** 적어주시시오.

번호	단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느낌	번호	단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느낌
1	어머니		23	훌륭한 대통령	
2	오빠		24	아버지	
3	남동생		25	독신녀	
4	시아버지		26	이모	
5	박정희		27	이회창	
6	국회의원		28	시아머니	
7	독신남		29	김대중	
8	누나		30	손자	
9	친구		31	언니	
10	노무현		32	시누이	
11	남편		33	할아버지	
12	이혼녀		34	아내	
13	대통령		35	삼촌	
14	며느리		36	장인	
15	형		37	할머니	
16	장모		38	이혼남	
17	고모		39	연인	
18	딸		40	과부	
19	정치가		41	여동생	
20	올아비		42	숙모	
21	손녀		43	훌륭한 정치가	
22	아들		44	사위	

부록 2. 본 조사 대상 정체성 100개

1	1	건축가	11	41	고아	21	81	할머니
	2	구두쇠		42	강패		82	동성애자
	3	동향사람		43	매니아		83	스님
	4	총각		44	변호사		84	후배
2	5	비행기조종사	12	45	농부	22	85	하느님
	6	영웅		46	연예인		86	검사
	7	어머니		47	고모		87	홀아비
	8	이혼녀		48	장모		88	노무현
3	9	이회창	13	49	아버지	23	89	장녀
	10	아내		50	이혼남		90	사위
	11	게으름뱅이		51	사장		91	교장
	12	무당		52	간첩		92	동창
4	13	의사	14	53	할아버지	24	93	시어머니
	14	범죄자		54	부하직원		94	사기꾼
	15	선생님		55	수재		95	아줌마
	16	오빠		56	요리사		96	학생
5	17	위선자	15	57	딸	25	97	김대중
	18	손녀		58	박정희		98	숙모
	19	이모		59	손자		99	장남
	20	경찰		60	연인		00	대통령
6	21	삼촌	16	61	직장상사			
	22	기술자		62	대학생			
	23	주정뱅이		63	포주			
	24	바람둥이		64	장애인			
7	25	택시기사	17	65	술집마담			
	26	마약중독자		66	주부			
	27	동생		67	누나			
	28	머느리		68	국회의원			
8	29	아들	18	69	언니			
	30	장인		70	과부			
	31	사채업자		71	공무원			
	32	기자		72	도둑			
9	33	흡연자	19	73	목사			
	34	아저씨		74	선배			
	35	점쟁이		75	컴퓨터프로그래머			
	36	장관		76	판사			
10	37	시아버지	20	77	친구			
	38	형		78	정치가			
	39	처녀		79	시누이			
	40	교수		80	남편			

### 부록 3. 요인 분석 결과 - 한국

Component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22.266	43.658	43.658	22.266	43.658	43.658	13.570	26.609	26.609
2	5.961	11.688	55.346	5.961	11.688	55.346	9.963	19.536	46.144
3	2.445	4.794	60.140	2.445	4.794	60.140	4.147	8.131	54.275
4	1.325	2.599	62.739	1.325	2.599	62.739	3.082	6.043	60.317
5	1.295	2.539	65.278	1.295	2.539	65.278	2.170	4.254	64.572
6	1.172	2.298	67.576	1.172	2.298	67.576	1.325	2.599	67.170
7	1.057	2.072	69.648	1.057	2.072	69.648	1.264	2.478	69.648
8	.868	1.701	71.350						
9	.810	1.589	72.939						
10	.772	1.513	74.452						
11	.658	1.291	75.743						
12	.630	1.236	76.979						
13	.613	1.201	78.180						
14	.548	1.075	79.254						
15	.510	1.000	80.255						
16	.498	.976	81.231						
17	.475	.931	82.162						
18	.462	.906	83.068						
19	.444	.870	83.938						
20	.434	.850	84.788						
21	.423	.829	85.616						
22	.397	.778	86.394						
23	.386	.756	87.150						
24	.370	.725	87.875						
25	.361	.707	88.582						
26	.346	.678	89.260						
27	.339	.665	89.925						

28	.316	.619	90.545						
29	.309	.606	91.151						
30	.303	.595	91.746						
31	.296	.580	92.326						
32	.274	.537	92.863						
33	.272	.534	93.398						
34	.264	.518	93.915						
35	.251	.491	94.407						
36	.244	.478	94.885						
37	.238	.466	95.351						
38	.228	.447	95.798						
39	.217	.425	96.224						
40	.211	.413	96.637						
41	.201	.394	97.031						
42	.194	.380	97.412						
43	.181	.355	97.767						
44	.176	.345	98.112						
45	.164	.322	98.435						
46	.154	.301	98.736						
47	.143	.281	99.017						
48	.135	.266	99.282						
49	.129	.252	99.535						
50	.125	.246	99.781						
51	.112	.219	100.000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부록 4. 요인 분석 결과 - 미국

Component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11.677	29.940	29.940	11.677	29.940	29.940	7.772	19.927	19.927
2	4.857	12.454	42.394	4.857	12.454	42.394	6.564	16.832	36.759
3	2.089	5.355	47.749	2.089	5.355	47.749	3.325	8.527	45.286
4	1.238	3.175	50.925	1.238	3.175	50.925	1.909	4.896	50.182
5	1.034	2.652	53.576	1.034	2.652	53.576	1.324	3.395	53.576
6	.983	2.520	56.096						
7	.934	2.395	58.491						
8	.851	2.182	60.674						
9	.847	2.173	62.847						
10	.784	2.011	64.858						
11	.753	1.930	66.788						
12	.714	1.832	68.620						
13	.686	1.760	70.379						
14	.682	1.748	72.127						
15	.645	1.655	73.782						
16	.628	1.611	75.393						
17	.597	1.530	76.923						
18	.579	1.483	78.407						
19	.566	1.452	79.859						
20	.533	1.367	81.226						
21	.529	1.355	82.581						
22	.505	1.294	83.875						
23	.494	1.266	85.141						
24	.471	1.209	86.350						
25	.459	1.176	87.525						
26	.444	1.139	88.664						
27	.424	1.088	89.752						

28	.414	1.062	90.814						
29	.395	1.013	91.827						
30	.374	.958	92.786						
31	.360	.923	93.709						
32	.351	.901	94.610						
33	.347	.890	95.500						
34	.339	.870	96.370						
35	.312	.799	97.170						
36	.291	.746	97.916						
37	.286	.734	98.650						
38	.284	.727	99.377						
39	.243	.623	100.000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부록 5. 설문지 예

	1	
--	---	--

## 인간 정서의 국제 비교 연구

본 조사는 인간 정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문화적인 시각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University of Iowa와 국민대, 서울 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사회학과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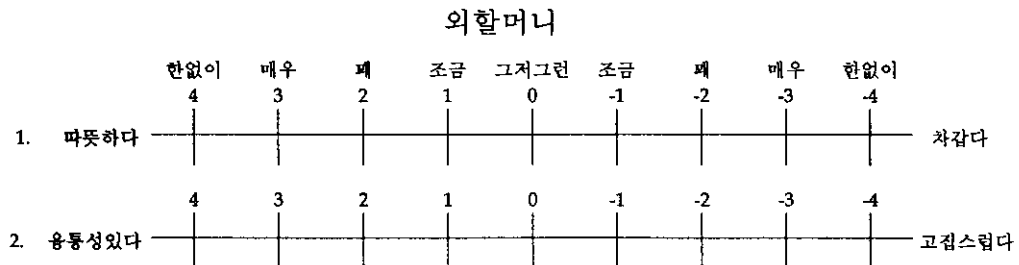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성 별	연 령
남 / 여	만 세

응답 방법:

각 페이지의 제일 위쪽에 제시된 단어를 보고 아래의 주어진 상반되는 형용사로 이루어진 각 척도에서 제일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위치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으며 귀하가 제시된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이 각 형용사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에 위치한 "그저그런"에 "V"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보기)



## 대통령

		4	3	2	1	0	-1	-2	-3	-4	
1	따뜻하다										차갑다
2	좋다										싫다
3	편하다										어렵다
4	무섭지않다										무섭다
5	민주적이다										권위적이다
6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7	너그럽다										엄하다
8	높다										낮다
9	위엄있다										경박하다
10	소중하다										하찮다
11	존경스럽다										멸시받는다
12	친하다										소원하다
13	교양있다										상스럽다



14	청렴하다	4	3	2	1	0	-1	-2	-3	-4	부패하다
15	예리하다	4	3	2	1	0	-1	-2	-3	-4	둔하다
16	활동적이다	4	3	2	1	0	-1	-2	-3	-4	수동적이다
17	깔끔하다	4	3	2	1	0	-1	-2	-3	-4	구질구질하다
18	든든하다	4	3	2	1	0	-1	-2	-3	-4	못미덥다
19	귀엽다	4	3	2	1	0	-1	-2	-3	-4	징그럽다
20	순종적이다	4	3	2	1	0	-1	-2	-3	-4	반항적이다
21	소신있다	4	3	2	1	0	-1	-2	-3	-4	소신없다
22	현명하다	4	3	2	1	0	-1	-2	-3	-4	어리석다
23	융통성있다	4	3	2	1	0	-1	-2	-3	-4	고집스럽다
24	철들다	4	3	2	1	0	-1	-2	-3	-4	철없다
25	썩썩하다	4	3	2	1	0	-1	-2	-3	-4	무뚝뚝하다
26	권력이있다	4	3	2	1	0	-1	-2	-3	-4	권력이없다

27	믿을수있다	4	3	2	1	0	-1	-2	-3	-4	믿을수없다
28	가깝다	4	3	2	1	0	-1	-2	-3	-4	멀다
29	멋있다	4	3	2	1	0	-1	-2	-3	-4	촌스럽다
30	정직하다	4	3	2	1	0	-1	-2	-3	-4	부정직하다
31	자상하다	4	3	2	1	0	-1	-2	-3	-4	무심하다
32	부드럽다	4	3	2	1	0	-1	-2	-3	-4	딱딱하다
33	사랑스럽다	4	3	2	1	0	-1	-2	-3	-4	싫다
34	재빠르다	4	3	2	1	0	-1	-2	-3	-4	느리다
35	용감하다	4	3	2	1	0	-1	-2	-3	-4	비겁하다
36	희생적이다	4	3	2	1	0	-1	-2	-3	-4	이기적이다
37	훌륭하다	4	3	2	1	0	-1	-2	-3	-4	보잘것없다
38	젊다	4	3	2	1	0	-1	-2	-3	-4	늙다
39	권위가있다	4	3	2	1	0	-1	-2	-3	-4	권위가없다

40	다정하다	4	3	2	1	0	-1	-2	-3	-4	냉담하다
41	아름답다	4	3	2	1	0	-1	-2	-3	-4	추하다
42	진보적이다	4	3	2	1	0	-1	-2	-3	-4	보수적이다
43	반갑다	4	3	2	1	0	-1	-2	-3	-4	귀찮다
44	유능하다	4	3	2	1	0	-1	-2	-3	-4	무능하다
45	차분하다	4	3	2	1	0	-1	-2	-3	-4	들떠있다
46	똑똑하다	4	3	2	1	0	-1	-2	-3	-4	멍청하다
47	친절하다	4	3	2	1	0	-1	-2	-3	-4	불친절하다
48	건강하다	4	3	2	1	0	-1	-2	-3	-4	허약하다
49	호탕하다	4	3	2	1	0	-1	-2	-3	-4	답답하다
50	자랑스럽다	4	3	2	1	0	-1	-2	-3	-4	부끄럽다
51	정상적이다	4	3	2	1	0	-1	-2	-3	-4	이상하다
52	강하다	4	3	2	1	0	-1	-2	-3	-4	약하다



ABSTRACT

The Structure of Trust  
: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Based on the Affect-Control Theory -

Woo, Kyung Im  
Dept. of Sociology  
The Graduated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tries to verify the supposition tha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structure and modality of 'trust' are constituted in a different way in its cultural and societal contexts. For presenting this verification, the Affect-Control Theory, a quantitative methodology of comparative studies, is used for analyzing the dimensions of personal sentiments.

In this study, a private individual is regarded as an actor whose cultural values are deeply internalized and trust is produced by affective rationality that has its origin in the cultural reflection of a private individual, not in the reckoning result of a private individual between benefits and costs. Therefore, verification is preceded as follows; researching the degree of 'trust' in people and in institutions analyzing the extent of explanatory reliance of extracted factors by adopting the Affect-Control Theory.

The overall result of study apparently shows the different configuration and degree of trust between the collectivism culture of Korea and the individualism culture of The United States. In Korea, 'trust in people' was

recorded high while 'trust in institutions' was low. It is a typical feature of collectivism, which indicates that the strong trust in the primary group does not extend to trust in the secondary group.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trust in people' and 'trust in institution' interacted as coefficient elements to increase the degree of trust. It means that people in The United States have a typical feature of individualism that the weak trust between the primary group people is supplemented by rule-directed fairness of institutions.

More importantly, the study result verifies the supposition that the dimensions of personal sentimen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national culture-identity of the people. The factor analysis of the collected materials presents different dimensions of affective response: Sociability, Responsibility, Activity and Power dimension of affective response are emphasized in Korea and Responsibility, Sociability and Activity dimensions in the Unites States. Though both countries have in common that 'trust in people' is settled by 'Sociability' and 'trust in institution' by 'Responsibility', comparing the score distribution of trust degrees between the two countries clearly implies the difference.

In other words, the reason for the high-degree trust in the people of Korea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high-score of the 'Sociability' factor for the primary group people and the relatively low-degree trust for institutions is connected with the low-score of the 'Responsibility' factor for identities of those of the secondary group.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the score distribution of trust degree for both the 'Sociability' factor for the first group people and the 'Responsibility' factor for identities of the secondary group people records evenly high.

Hence, the main structural difference of trust can be constructed by cultural and societal contexts of each country; Firstly, the degree of 'trust in people' varies with gender identity. People in Korea trusted the 'female identity' more than the 'male identity' and vice versa in The United States. Secondly, the degree of 'trust in institutions' varies according to their kind. While people in Korea showed relatively deep credibility to social institutions - i.e. medical, educational and religious services, they did not show their trust to those of the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degree of trust in institutions is not clearly distinguished between the social and the government but by professions i.e. the degree of trust for the medical-service institution was higher than any other institution, followed by juridical, educational, governmental and political in sequences.

This study also provides the opportunity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Affect-Control Theory along with the degree of the trust analysis. It is the basic assumption of the Affect-Control Theory that affective responses of a person on a specific object are composed of three dimensions Evaluation, Power and Activity. However, it does not explain social identity acutely because Evaluation level can be divided into 'Sociability' for the primary group people and 'Responsibility' for the secondary. In addition to this, the Affect-Control Theory needs more exquisiteness in the perspective of the Pan-Cultural validity of the theory. For example, Power dimension was extracted in Korea while it was absent in the United States.

---

Key words : Trust, Affect-Control Theory, trust in people, trust in institution, private trust, public trust,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Sociability, Responsibility, Activity, Power